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홈캐시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266호

Wednesday, April 2, 2025 A

트럼프 "관세가 제조업 살린다"

미국 자동차 무역 적자액만
연간 2740억달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 상호 관세 부과를 통해 제조업 일자리를 다시 되찾아오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의 만성적 무역 적자 배경에는 많은 기업이 미국 내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제조업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최근 40년 동안 외국에서 더 저렴한 인건비 등 생산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공급망 조정이 이뤄져 왔다. 캐나다 자동차제조사연합회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에서 최종 조립까지 모두 8번의 수입 통관 절차가 이뤄진다. 그 결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2024년 미국 무역적자는 2740억 달러에 이른다.

적자액의 절반 이상인 1170억달러는 멕시코에서, 500억달러는 일본에서, 430억달러는 한국에서 발생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자동차 무역을 통해 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도 20억 달러가 넘는다. 작년



미시건 디트로이트의 GM 허버 EV 생산 공장

[로이터]

미국 무역 적자는 1조2000억 달러로, 자동차 및 부품이 1/4에 이른다.

자유무역으로 저임금 국가에 생산을 외주화하면 상호 이익이 높아질 것 같지만, 정반대현상이 벌어졌다.

무역적자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급속히 해외로 일자리가 유출되면서 결국 미국 근로자의 손실로 귀결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전미자동차노동자연합(UAW)' 등의 지지를 받았다.

UAW는 최근 30년새 9만개 이상의

자동차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 처음 시행된 1994년 멕시코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110만 대에서 2024년 400만 대로 늘었다. 이중 80%가 미국으로 수출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며, 외국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다시 옮기거나 미국 내 생산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욱재 기자

복수국적자도 2차 입국심사

최근 공항 입국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면서 시민권자들도 2차 입국심사를 받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공항입국심사에서 심층 질문과 전자기기 검사 등을 진행하면서 소위 '강화된 심사(enhanced vetting)'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심사는 주로 복수국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케일린 리베라는 카리브해 퀴라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노스캐롤라이나 샬럿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 과정 중 제지를 당했다. 리베라는 미국과 콜롬비아 복수국적자이자 바이든행정부 시절 환경보호청 상임고문을 지낸 바 있다.

리베라는 입국심사 도중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돼 여행목적과 일정 등에 대해 심문을 받았고, 가방까지 수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입국심사관들은 지금 당국으로부터 입국자 정보는



최대한 많이 수집하라는 지침을 받고 있으며 예전에는 문제가 없던 시민권자나 합법비자 소지자들도 얼마든지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 대상 확대는 실제로 여러차례 보고되고 있다. 영주권자도 예외가 아니다. 일부 대기업은 H-1B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H-1B 비자 거부율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수준인 15%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준 기자

오늘(2일) 상호관세 발표

스콧 베스턴 연방 재무부 장관이 오늘(2일) 오후 3시 상호관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의 세율과 관련,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부과하는 우리도 부과하겠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친절하다"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한 관세보다는 관세율이 낮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훨씬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유럽연합(EU)의 50% 유제품 관세, 일본의 700% 쌀 관세, 인도의 100% 농산물 관세, 캐나다의 300% 버터·치즈 관세 등을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사례를

언급했다. 일부 언론은 1일 밤 늦게 상호관세의 구체적인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발표가 2일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가 있다"는 질문에 "모든 국가가 미국을 상대로 돈을 왕창 벌지는 않았지만 거의 모두가 그랬다. 하지만 모두가 그러지는 않았으며 우리는 그러지 않은 국가에 매우 친절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중국과 더 협력하게 만들 가능성을 우려하는 질문에는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3일 오후 10시...윤 '운명의 시간'

헌법재판소가 동부시각 3일 오후 10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함에 따라 헌정사 두 번째의 대통령 파면이나, 윤 대통령 직무박거나의 운명이 갈린다.

8인 재판관이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2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 예정이지만 4일 선고에 관한 절차적인 부분만 논의한다.

4일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헌법 68조

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선일은 6월 3일이 유력하다. 탄핵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탄핵 찬성 진영의 탄핵심판 불복 운동 등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선고일 지경에 대한 여야 반응도 온도 차가 컸다. 국민의힘은 '승복'에 무게를 뒀지만 민주당은 '파면'에 힘을 줬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장은 "이제라도 헌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며 "야당은 '유혈사태'를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3일 오전 9시(한국시간)부터 분청과 서울청에 경찰력 50%를 동원하는 을호비상을, 선고 당일인 4일 0시부터는 전국에 경찰력 100% 동원 가능한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플랜지매입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관세 인상 전 자동차 사자”

관세 인상 직전 수입차를 사기 위한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평일 오후에도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현대차 딜러샵에는 오후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3일부터 수입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차를 사기 위해서다.

현대차는 딜러들에게 관세로 인해 자동차값 인상 가능성을 이미 고지했다. 현대차 내부에서는 전량을 한국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이 관세에 따른 가격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안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인근 일본의 혼다와 닛산의 딜러샵에도 상당 테이블이 꽂찰 정도로 차량 구입을 서두르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그러나 일본 업체 관계자들은 “한국 언론에서 왔다”는 말에 일제히 “본사의 방침으로 취재를 허용할 수 없다”며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일본 업체 딜러는 “솔직히 본사에서 가격 변동에 따른 명확한 판단이나 입장을 일선 딜러샵으로 내려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관세가



트럼프에 의해 즉흥적으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정책이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조차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신차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충격은 도미노처럼 중고차 시장까지 흔들고 있다.

버지니아주의 중고차 판매 회사인 이스턴스의 딜러 로리 프레지던트는

“연쇄적인 자동차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서둘러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자동차 관세 발표 이후 중고차 시장까지 상당히 바빠졌다”며 “특히 중고차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한국의 현대와 기아, 일본의 토요타와 혼다 차량 등 관세에 직접 노출되는 차량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강태화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윈스턴 레드 다이아몬드, 스미소니언 전시

전세계에서 가장 큰 적색 다이아몬드인 윈스턴 레드 다이아몬드가 1일부터 워싱턴DC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이 다이아몬드는 2.33 캐럿짜리로, 전세계에서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로 평가 받는다.

감정 받은 레드 다이아몬드는 30개도 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윈스턴 레드 다이아몬드는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레드 다이아몬드는 일반적인 다이아몬드와는 달리 소량의 비소가 다이아몬드의 크리스털 구조에 녹아들어 빨간 색을 만들었다.

FAA 공항 관제사 133명 총원 계획

연방항공국(FAA)이 워싱턴DC 본부 55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33명의 공항 관제사를 총원할 계획이다.

는 포도맥 관제센터(33명)도 다수를 채용한다. 이밖에도 워싱턴 지역에는 달레스 공항(4명), 매나사스 공항(1명), 리치몬드 공항(7명), 레이녹 공항(7명) 등이 배정됐다.

마약 일제 단속주간, 92파운드 압수

버지니아 주립경찰국이 지난 3월20일부터 27일까지 마약 집중 단속 기간에 모두 91.7파운드의 각종 불법 마약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마약의 시가는 270만달러에 이른다.

파운드, 코카인 9.77파운드, 마리화나 8.5파운드 등이다. 마약과 함께 다량의 총기와 폭발물을 압수했으며 인신매매 용의자 12명 등 마약관련 사범 3천여명을 압수된 마약은 마타페타민 66.35 조사했다.

메릴랜드 이민자 행정착오로 추방돼

연방국토안보부가 메릴랜드의 한 이민자를 행정 착오로 엘살바도르로 잘못 추방했다고 인정했다. 이 이민자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나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밝혔다.

엘살바도르 국적의 킬마르 가르시아는 2019년 이민법원으로부터 보호 신분을 부여받아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연방당국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3월15일, ICE가 착오로 인해 추방했다고 시인했다.

VA 페어팩스 카운티 가장 건강한 곳 4위

니치닷컴 조사 결과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와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지역 3위와 5위에 선정됐다. 이 조사는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흡연율, 알콜중독률, 비만율, 정신건강율, 피트니스 체육관 비율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버지니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순위에는 페어팩스, 요크, 라운던 카운티가 각각 1,2,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주택 구매가 쉬운 지역정부 순위에서는 페어팩스 카운티가 전체 276개 카운티 중 1319위에 그쳤다.

김옥재 기자

만우절 기사 찾기 어려워진 이유, ‘가짜뉴스’ 시대라서

10년 전만 해도 만우절 기사가 너무 많아 이를 모아 별도의 묶음 기사로 보도할 정도였으나 이제 이런 농담은 추억일 뿐이다. 요즘 신문들에도 만우절 이면 농담성 기사가 한두 개쯤 올라오기도 하지만 과거와 같은 존재감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문가 중 일부는 그 이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부상에서 찾았다. 언론학자인 영국 카디프대 스투어트 앨런 교수는 BBC와 인터뷰에서 SNS가 떠오르면서 언론과 독자 사이에 다른 성격의 관계가 생겨났다고 진단했다.

앨런 교수는 “우리는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의 시대에 빠져 있다. 이런 시대에 편집자들은 신뢰 문제를 가장 중요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우절 기사가 줄어드는 것은 전반적으로 뉴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커진 시대상에 따른 것으로, 이런 시기에 저널리즘의 신뢰도를 갖고 장난치는 것은 해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달라진 세계정세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뉴스 웹사이트 ‘런던 센트럴’의 편집자 짐 워터슨은 “사실에 기반한 모든 것을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면서 너무나 기빠하는 세계 지도자들이 있다면, 왜 그들에게 문자 그대로 가짜뉴스라는 무기를 건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뉴스 소비자들이 SNS에서 뉴스를 접할 때 보도된 날짜에 얽매이지 않는 것도 만우절 기사의 인기가 시들해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중이신문으로 뉴스를 접할 땐 독자

들은 신문 제일 위에 적힌 날짜에 보다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첫 보도가 나오고 며칠,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해당 온라인 뉴스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 이후 AI 이미지와 실제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사실을 밝히는 언론의 역할이 더 커진 시대에 만우절 기사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의견도 있다.

영국 셰필드대에서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비나 오그베보르 박사는 만우절 기사가 독자를 화나게 할 수도,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우절 기사가 여전히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면서 언론이 만우절 기사를 게재하기로 했다면 매우 명백한 면책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날씨 (°F)

3일(목) 81-67	6일(일) 71-47
4일(금) 71-56	7일(월) 60-40
5일(토) 59-51	8일(화) 53-36

4월 2일(수) 59~51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1-495 가가운1층 콘도 킹스팩 \$1,600 방1, 화장	RENT 4층 타운하우스 현면 \$4,100 방4, 화장 1/2, 차고2	RENT 4층 타운하우스 현면 \$3,900 방4, 화장 1/2, 차고2
--------------------------------------------------------	----------------------------------------------------------	----------------------------------------------------------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보건복지부 공무원 1만명 해고 시작

연방효율부, 2만명 감축으로
연간 예산 18억달러를 절감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 등 공무원 1만명 해고작업이 시작됐다.

지난 1일(화) 메릴랜드 베데스다의 FDA 본부 건물 입구에서는 출입증 검사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해고된 공무원은 입장이 금지된 채 곧바로 귀가 조치됐다.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8만2천명 중 두달 전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통해 1만명에 이번 1만명이 추가돼 모두 2만명이 감축된다.

연방효율부는 2만명 감축으로 연간



예산 18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우리는 더 작은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며 어떤 미국인도 뒤쳐지지 않게 할 것”이라며 “많은 부서를 통합해 납세자와 환자들에게 더욱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워싱턴 지역 고용시장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FDA 감축인원 3500명은 대부분 메릴랜드 주민이다.

당국에서는 FDA 감축으로 인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음식 등의 검사 및 조사 업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인력의 1/2 이상이 메릴랜드에서 일하는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감축 인원은 2400명이다.

CDC는 애틀랜타에 본부를 두고 연간 90억달러를 집행하고 있지만, 현재 강도높은 감사를 받고 있다.

김윤미 기자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50주년 기념 오찬기도회 열려

희년 감사영광예배 앞두고
한인교계 뜻 모아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전찬선 목사, 이하 교협) 50주년(희년) 기념 위원회(위원장 이병완 목사)는 지난 31일, 워싱턴 헤리티지 대학교(이사장 문선희)에서 50주년 기념 감사영광예배를 앞두고 ‘오찬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번 오찬기도회는 교협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로 준비되는 감사영광예배를 비롯해 50년사 발간, 감사영광음악회, 교협을 빛낸 50인 선정, 교회와 목회 포럼 등의 준비를 위한 중보기도와 더불어, 국내외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드려졌다.

기념위원장 이병완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교협의 역사적 희년”이라며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회복과 용서, 자유를 선포하는 희년의 정신을 널리 알리려 한다”고 전했다.

예배는 김성도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었으며, 배현수 목사의 기도, 박희숙 목사의 성경봉독, 김영진 목사의 설교가 이어졌다. 합심기도는 한세영 목사가 인도했으며, 한훈, 이범, 이택래, 안현준 목사가 각각 기도를 맡았다. 예배는 김재동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후 사무총장 김범수 목사의 사회로 참석한 목회자들의 교회 소개 시간이 이어졌으며, 문정주 목사의 기도로 마무리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올네이션스교회에 부임한 오건목 목사를 비롯해 이택래, 주명식, 최종욱, 이태봉 목사가 자신들의 사역지를 소개하며 교계의 협력을 다짐했다. 한편, 교협 50주년 기념 감사영광예배는 오는 6일(일) 오후 5시30분, 워싱턴한인장로교회(박성일 목사)에서 드려질 예정이며, 메릴랜드기독교합창단의 특별찬양이 함께할 예정이다.

김윤미 기자



10억불 이상 미국 부자 902명, 중국은 516명

경제잡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부자 순위 조사에서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순자산 보유인 미국인이 902명이었다.

전세계적으로는 3028명으로 1년 전보다 247명 증가했다. 중국은 516명, 인도는 205명이었다.

3028명의 자산을 모두 합치면 16조1천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1년새 2조달러 이상 증가한 것이다.

16조1천억 달러는 세계 모든 국가들의 1년 국내 총생산(GDP) 합계액의 15%가 넘는다.

또한 미국 GDP(29조 달러)와 중국 GDP(20조 달러)를 제외한 전세계 GDP 합계액보다 많은 돈이다.

1000억 달러 이상 순자산 보유자는 15명, 2000억 달러 이상은 3명이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3420억 달러, 마크 주커버그 메타 CEO는 2160억 달러,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2150억 달러였다.

머스크는 작년 비상장 회사 스페이스X와 xAI 가치, 테슬라 보유주식 가치가 급증하고 전세계 1위가 됐다. 10억

달러 이상 순자산가의 평균 순자산은 53억 달러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자산 가치가 증가해 작년보다 순자산이 두 배 늘어난 51억 달러를 기록했다. 최상위 15명의 총자산은 2조4000억 달러로 최하위 1500명 합계액보다 많았다.

10억 달러 이상 부자가 1명 이상인 국가는 76개국이었다.

여성은 406명이었다. 이들의 67%가 자수성가형 부자였다.

김윤미 기자

VA 등 25개주 갱단 불체자 추방 청원

버지니아 등 25개주 검찰총장이 연방 대법원에 갱단 소속 불체자를 계속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청원서를 제출했다.

제이슨 미야레스(사진) 버지니아 검찰총장은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잔악한 범죄자들을 추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연방법원은 연방정부가 불법체류자

라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 없이 해외 구금 시설로 긴급 추방하는 것은 부당하며 행정처분 중단가 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민감한 외교적 협상 등에 연방법원이 간섭할 수 없

다”면서 긴급 청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야레스 검찰총장은 “3월27일 연방정부의 노력으로 버지니아 아웃브릿지에서 MS-13 갱단 두목 헨리 호세 빌라토로(24세)를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알살바도르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미국에서 각종 흉악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하지 않고 추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고려대 4.18 대장정 달리기 행사

고려대학교 교우회 워싱턴 지부가 1960년 4.18 의거 65주년을 맞아 4.18 대장정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오는 19일(토) 오전10시 메릴랜드 베데스다의 캐더락 공원 피크닉 파빌리온(9500 Macarthur Blvd, Bethesda, MD)에서 열린다.

고려대 4.18 의거는 3.15 부정선거와 자유당의 독재를 규탄하기 위해 1960년 4월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벌인 시위를 말한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였음에도 정치강패를 동

원해 시위 후 해산한 학생들을 습격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이 사건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고려대는 매년 4월18일 안암동 본교 캠퍼스에서 출발해 수유동에 위치한 국립 4.19 민주묘지 내 4월학생혁명기념탑까지 4.18 대장정(왕복 마라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 참석을 위해서는 10일까지 예약을 해야 한다.

>문의: kualumni.dc@gmail.com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미!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미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라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듀

DUO NY 212-915-7115

**It's Okay,
with
Jesus!**

샌프란시스코 극장 폐관 CGV, 이번엔 로펌과 소송

2021년 오픈했다 문 닫아 변호인측 “임대 보증 해결”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대형 영화관 체인 CJ CGV가 샌프란시스코 상영관 폐관을 둘러싸고 법률대리인과 ‘보수(success fee)’ 문제로 소송 중인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연예 전문매체 버라이어티는 지난달 31일 ‘한국 최대 극장 체인이 미국에서 어떻게 재산을 잃었나’라는 제목의 기사로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CGV는 지난 2021년 샌프란시스코에 14개 상영관 규모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열었지만, 개관 18개월 만에 문을 닫아 5400만 달러 규모의 손실을 봤다.

특히 버라이어티는 CGV가 영화관 문을 닫는 과정에서 파산 전문 로펌 ‘파출스키 스탕지엘 & 존스(Pachulski Stang Ziehl & Jones)’를 고용해 손실을 줄였지만, 정작 이 로펌에 성공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CGV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9월 샌프란시스코 벤네스 애비뉴 옛 캐딜락 쇼룸과 AMC 극장이었던 4층짜리 건물에 3호점을 오픈했다. 이 3호점은 LA점(3개 관), 부에나비야점(8개 관)보다 큰 규모로 주목을 받았다. CGV 측은 2018년 건물주와 20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1480만 달러를 투자, 극장에 3D 입체 영상에 물-

바람 등의 효과, 모션 의자 등이 설치된 4DX는 물론 270도 화면의 스크린X 등의 최첨단 시설을 구축했다.

하지만 3호점은 팬데믹 사태와 주변 지역의 높은 공실률, 홈리스 증가 문제로 개관 직후부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CGV 미국 법인은 지난 2023년 2월 관람객 감소 등을 이유로 폐관을 결정했다.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CGV는 폐관 과정에서 임대료 지급 보증(7520만 달러) 문제에 빠졌고, 이를 피하고자 건물주와 2800만 달러 규모의 건물 매매 협상을 진행했다. 20년 간 임대료 지급 보증 대신 건물 매입이라는 우회 방식을 택한 셈이다. ‘파출스키 스탕지엘 & 존-

스’가 CGV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협상을 시도했고, 건물 매입 결정 후 CGV에 성공 보수를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CGV 측은 해당 건물을 투자자에게 되파는 과정에서 오히려 2800만 달러 손실을 봤다며 성공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후 로펌 측은 법원에 중재를 신청했고 지난 2월 중재인 브루스 아이삭은 CGV가 건물을 매입하고 되파는 과정에서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얻을 기회가 있었다며, 약속한 성공 보수 107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현재 파출스키 스탕지엘 & 존스 측은 중재 판정 확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CGV는 중재

판정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며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CJ 아메리카측에 입장을 묻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31일 오후 5시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CGV 측은 최근 웹사이트 등을 통해 부에나비야 2호점의 ‘임시 휴업(temporarily closed)’을 공지하기도 했다. 현재는 LA 1호점만 운영 중인 상태다. CGV는 지난 2010년 LA점을 시작으로 한국형 극장 엔터테인먼트의 미국 진출을 시도했지만, 최근 극장 산업 전반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CGV는 지난 2월 한국에서도 직원 희망 퇴직 및 영화관 4곳을 폐관한 바 있다.

김형재 기자

매력적 이성에 홀려 ‘로맨스 스캠’ 당한다

LA총영사관, 피해 5건 접수 SNS·문자 등으로 말 걸어

최근 한인을 노린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LA총영사관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는 5건 이상이다.

LA총영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소셜미디어와 카카오톡 등으로 친한 척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이성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로맨스 스캠은 매력적인 이성인 척 접근해 신용사기를 벌이는 수법이다.

남자주거주모(여)씨는 한 남성이 페이스북으로 호감을 표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설했다고 한다. 김씨는 “그 남성은 본인이 특수업체 전문 엔지니어라며, 현재 제3국에서 근무 중이라고 소개했다”며 “매일 본인 사진과 동영상 보내왔다. 마음이 갔을 때 본인 장비가 망가졌다며 수리비를 빌려달라고 했다. 여러 계좌로 송금을 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전했다.

박모(남)씨는 카카오톡으로 말을 걸

어온 미모의 여인에게 속아 코인투자금을 날렸다. 박씨는 “그 여성은 내 친구인 척 말을 걸었다가 내가 아니라고 하니 미안하다고 했다”면서 “여성은 곧 친구 하자고 제안했고 본인 재력을 과시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다. 친척 덕에 돈을 벌었다며 나보고 코인 거래를 유도했다”고 전했다.

LA총영사관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따르면 본인을 엔지니어, 군인, 외교관, 사업가, 투자자라고 속인 사기범은 카카오톡, 소셜미디어, 문자 등으로 접근을 시도한다.

사기범은 매력적인 이성 사진을 보내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갖고 싶다”고 호감을 표한다. 이후 친분을 쌓으면 ‘가족이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에 체포됐다.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을 부탁한다.

강경한 경찰철사는 “로맨스 스캠은 모르는 사람이 호감을 표하며 접근한 뒤, 결국 어떤 이유에서든지 금전적 요구를 하는 동일 수법을 쓴다”면서 “한 피해자는 1만 달러 이상을 송금하고 착

지 못했다.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범죄로 수사가 어려운 만큼 모르는 사람이 온라인과 문자 등으로 접근하면 의심은 꼭 해야 한다. 특정 링크를 보내 클릭을 유도하면 반드시 무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남부 지역에는 한국 기업에 파견된 주재원을 노린 로맨스 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사기범은 현재에 파견된 주재원의 ‘외로움’을 파고든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주재원에게 접근해 금융정보나 송금을 요구한다. 일부는 알몸 동영상 채팅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측은 지난달 29일 동남부한인회연합회 회장단 연수에서 각종 사기 예방교육 후 “피해를 보면 곧바로 수사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사관 사칭 사기도 여전하다. 애틀랜타 한 한인은 대사관 직원을 빙자한 사기에 30만 달러를 손해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재 기자

병원·요양시설 ‘수퍼곰팡이’ 확산

수퍼곰팡이로 불리는 ‘칸디다 오리스(Candida auris)’가 최근 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 곰팡이는 항생제나 항진균제 등에 강한 내성을 보여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와 중증 환자에게 치명적이다. 감염 시 사망률이 30~60%에 달한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조지아주 공중보건국은 관찰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의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플로리다주 보건 당국도 지역 병원에서 곰팡이의 빠른 확산세가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 곰팡이는 2023년에도 전국으로 확산, 한 해 동안 보고된 감염 건수가

4514건이나 됐다.

2016년 첫 보고 당시의 52건에서 7년 만에 폭증세를 보인 것이다. 당시 전국 감염자의 35%(1566명)는 가주에서 나왔다.

칸디다 오리스는 사람 간 접촉이나 오염된 표면, 의료기기를 통해 전파되며, 일반 소독제로는 제거되지 않고 수주간 생존할 수 있다.

김경준 기자

세계적 갤러리 리만 머핀에 한인이 최연소 작가로 합류

한인 작가 안나박(Anna Park, 28·사진)이 세계적인 갤러리 리만 머핀(Lehmann Maupin)의 최연소 작가로 합류했다.



드 머핀은 “안나의 작품은 현대적 경험을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조명하며, 미디어에서 여성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압력을 대규모의 목탄과 잉크 드로잉을 통해 탐구한다”고 평가했다.

박씨는 지난 1996년 한국 대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성장했다. 그는 지난 2017년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일러스트레이션과 애니메이션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2020년 뉴욕 아카데미 오브 아트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리만 머핀의 공동 설립자 데이비

김경준 기자



대구경북향우회 경북 산불 성금 미주대구경북향우회총연합회(회장 단 리)가 경북 산불 피해 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모금을 진행중인 경상북도해외자문위원협의회(회장 서정배)에 전달된다. 31일 엑티브USA 본사에서 단 리(가운데) 회장과 향우회 임원들이 김씨가 경북 LA 사무소 소장(오른쪽에서 세번째)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미주대구경북향우회 총연합회 제공]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텝,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 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中 '파나마항 매각' 딜레마... "성사나 무산돼도 중국이 패배"

홍콩기업 CK허치슨 연일 압박 '친기업' 신호와 상반돼 신뢰 ↓

홍콩기업 CK허치슨홀딩스가 파나마 항구 등의 운영권을 미국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한 거래와 관련해 어느 쪽으로 귀결되든 중국이 '패자'가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당국은 해당 거래가 미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CK허치슨을 연일 비판하며 '계약 자진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압박에 실제로 매각이 무산될 경우 최근 당국이 힘을 싣는 '친기업' 메시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서 홍콩이나 외국기업들의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미국 패권에 굴하지 말라"... 中, 연일 '파나마항 매각' 때리기

중국 당국은 관련매체 논평을 통한 '간접적' 방식에 이어 직접 반독점 조사



홍콩기업 CK허치슨이 보유한 파나마발보아항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카드를 꺼내 들며 CK허치슨과 블랙록 컨소시엄 간의 거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13일 처음 파나마 항구 매각 거래 관련 논평을 실은 홍콩 관변매체 타쿱오(大公報)는 지난달 30일과 31일에도 정·재계 인사들의 의견을 인용해 '미국의 패권에 굴하지 말고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국의 반

독점 조사를 정당화하는 기사를 냈다.

지난달 28일에는 중국의 시장규제·감독 기관인 국가지장감독관리총국(SAMR)이 파나마 항구 매각 거래에 대한 반독점 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후 CK허치슨은 당초 이달 2일로 예상됐던 최종 계약 체결을 미룬 상태다.

파나마 운하에 있는 항구 5곳 가운데 발보아·크리스토팔 등 2곳을 운영해온

CK허치슨은 지난달 4일 파나마 항구 운영권을 포함해 중국-홍콩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 23개국 43개 항만사업 부문 지분을 228억 달러에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한다고 발표하고 우선협상 중이었다.

CK허치슨은 홍콩 재벌 리카싱(李嘉誠) 일가의 주력 기업으로 중국 당국과는 상관이 없는 민간 기업이다. 애초에 영국계 기업인 허치슨워포아가 2015년 리카싱의 청강(CK·長江)그룹과 합병하며 생긴 기업으로 본사는 케이맨 제도에 있으며 주요 주주도 리카싱 가문(지분 약 30% 보유)과 블랙록(5%), 뱅가드그룹(2.78%) 등이다. 매출에서 중국 본토와 홍콩이 차지하는 비율도 10%대에 그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운하 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CK허치슨이 보유한 파나마 운하 항구는 미·중 간에 새로운 충돌 지점으로 부각됐고, 매각 발표로 일단락

되 듯했던 논란은 중국 당국의 개입으로 다시 불이 붙었다.

◇ 中, 해외 거점항 대거 잃을 위기 "최근 20년간 확보 항구 운영권 반토막"

중국 당국이 반독점 조사 카드까지 꺼내며 'CK허치슨 때리기'에 나선 것은 이번 매각으로 중국 및 홍콩 기업이 운영해 당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외 항구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7월 "해양강국 건설"을 중요 국가 의제로 강조한 이후로 중국은 세계 곳곳의 주요 해상 요충지에 지분 투자 등으로 거점항구를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는 지난 해 8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남극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총 129개 항구 프로젝트의 지분 또는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운데 15개 항구는 중국인이 대부분 소유해 중국 해군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김정은과 소통 있다, 어느 시점에 무언가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이 있다"며 "어느 시점에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으로 북·미 간 접촉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김정은에게 연락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Well, I do)"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정은을 향해 "(북한은) 큰 핵 국가(big nuclear nation)이고 그는 매우 스마트한 사람(very smart guy)"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취임 당일 이후 여러 차례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가(nation)'라는 단어를 사용해 재차 북한의 핵 보유 측면을 부각했다. 이로 인해 북한이 원하는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향후엔 인정해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김정은과 하겠다고 밝힌 '무언가(something)'가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북 문제를 둘러싸고 트럼프가 새로운 카드나 접근법을 염두에 뒀을 수 있어서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월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북·미 간)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딜'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고 보면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북한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사"란 분석도 있다. 일정한 주기로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는 등의 유화적 제스처를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산된 행보라는 얘기도.

실제로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접촉이나 대북정책과 관련한 새로운 접근에는 열려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1기 때 유지했던 '비핵화' 원칙만은 고수하고 있다. 지난 2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에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뿐 아니라 백악관도 꾸준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핵 문제를 잘 안다는 자신감을 부각하는 과정에서 나온 트럼프식 화법"이라며 "모호한 발언으로 김정은의 관심을 끌면서도 공식 입장에서 비핵화 원칙을 철저히 유지하며 협상의 공간을 넓히려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가시나무새' 리처드 체임벌린 별세

1980년대 드라마 '가시나무새'의 주인공으로 인기를 끈 배우 리처드 체임벌린(사진)이 생일을 하루 앞두고 9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3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체임벌린의 대변인은 그가 전날 밤 하와이 오아후섬의 와이마날로에서 뇌졸중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체임벌린은 1983년 국내에서 방영된 TV 미니시리즈 '가시나무새'(원제 Thorn Birds)에서 주인공인 가톨릭 신부 '델프' 역을 맡아 큰 인기를 끌며 '미니시리즈의 제왕'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가시나무새'는 호주 소설가 콜린 맥컬러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이다.

가톨릭 신부와 젊고 아름다운 여성 '매기' 사이 금단의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미국에서만 1억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았다.

1934년 LA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화가를 꿈꿨고 포모나 칼리지에서 회화와 미술사를 전공했다.

그는 이후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배우의 길로 진로를 틀었고, 몇몇 단역을 거친 뒤 1961년 TV 시리즈 '닥터 킬데어'에 출연하며 스타 반열에 올랐다.

그는 대표작인 '가시나무새'와 '쇼군'으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부문 남우주연상을 2차례 받았고, '닥터 킬데어'로 '최고 TV 스타상'을 수상했다.

현예술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저"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역조림)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Baltimore
(301) 962-8300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손놓은 군부... 연 1000달러 버는 주민들 “구조비가 500달러”

(만달레이)

“정부서 해외 구조대 막는다” 소문 가난한 미얀마인들 감당하기 벅차

절규와 아우성은 밤과 함께 잦아들었다. 하단부가 주저앉은 만달레이의 12층 높고 고급 아파트 ‘스카이 빌라’는 6개 층만 지상에 잔해를 내밀고 있었다. 지진 직후 주민 90여 명이 갇혀 있던 곳이다.

스카이 빌라 주민들에 대한 구조는 재난 구조의 ‘골든타임’(72시간)인 지난달 31일 오후 1시(현지시간)를 지나기 전에 멈춰섰다. 주민 테수산디 짜우는 “구조작업에 필요한 크레인 임차비가 너무 비쌌다. 사람 1명을 구하는 데 무려 100만 짜트(약 500달러)나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당 연간 소득이 1000달러(약 147만원)를 겨우 넘는 미얀마인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반군 장악한 사가잉에 지원 대신 폭격

1일 오전 8시 기자가 찾은 스카이 빌라에는 출입금지 테이프가 둘러쳐져 있었다. 바로 옆에 소방차가 무료한 듯 정차해 있었다. 시취(屍臭)와 태양의 열기, 끈적한 습기가 뒤섞인 공기를 배경으로 군인 2명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검문했다. 거대한 지진의 충격은 완



1일(현지시간) 만달레이에서 강진 피해를 본 주민들이 여진 두려움 때문에 거리에 모여 지내고 있다. 위문희 기자, [신화·연합뉴스]

만하게 흘러가는 남국(南國)의 시간에 흡수되는 중이었다. 사람들은 마을길을 따라 이어지는 수로에서 물을 길어 몸을 씻고, 태양전지판을 가진 이웃집에 들러 휴대전화를 충전했다. 잔해를 파헤치던 손길 역시 둔해졌다.

조성현 만달레이 한인회장은 “여진이 무서운 법인데,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사람들이 마구 들어간다”며 답답해했다. 그는 1993년 292명의 사망자를 낸 서해 페리호 참사의 생존자다. 지난 달 28일 강진이 났했을 당시 “미얀마를

지켜 달라”고 기도할 만큼 미얀마인에게 애정이 깊다.

똥배인(삼촌차)을 타고 폐허가 된 시내를 돌아다녔지만 정부나 군이 파견한 구조대가 조직적으로 구조활동을 벌이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기계 장비는 한 시간 동안 포클레인 서너 대를 본 게 전부였다. 한 주민은 “정부에서 지진 때문에 물도 없고 전기도 없으니 외국 구조대는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는 말이 돈다”고 했다. 대만이 구조대를 보내려다가 무산된 게 소문

처럼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과 우호관계인 군정이 대만의 지원을 일부러 거절했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만달레이의 호텔과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중국 구조대가 생존자들을 구조했다는 보도가 중국 언론발로 나오지만, 현지 교민은 “중국 구조대가 간 곳은 주로 중국 자본이 들어갔거나 중국인이 숙박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붕괴 현장에서 청년들 역시 드물었다. 젊은이들은 잔해를 파헤치다가도 자취를 감춰버린다. 군정이 지난해 2월 징병제를 실시한 이후 납치하듯이 남자들을 끌고 간다는 소문도 돌았다.

다시 문 연 편의점... 식료품 사재기 없어

오랜 기간 군부 통치를 겪던 미얀마는 아웅산 수지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의 2020년 11월 총선 승리로 민주화를 이루는 듯했다. 그러나 군부는 이듬해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를 뒤엎었다. 이 때문에 군정에 대한 반감이 미얀마 사회 저변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 특히 이번 지진 피해를 본 만달레이는 2007년 승려들과 함께 군정에 반대하는 ‘사프란 혁명’(승복의 사프란 색에 빚낸 용어)을 일으킨 적도 있다.

30대 현지 주민은 “정부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자포자기하듯

말했다.

만달레이보다 더 참혹한 곳은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사가잉이다. 사가잉은 이번 7.7 규모의 강진 진앙지였다. 그러나 군정은 반군이 장악한 도시라는 이유로 지원을 원천 차단 중이다. 그리고는 오히려 반군의 휴전 제안을 무시하고 폭격했다. 사가잉에선 넘쳐나는 시신 때문에 악취가 진동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미얀마 군정은 1일 지진에 따른 사망자는 2719명, 부상자는 4521명으로 집계했다. 실종자는 400명 이상이라고 한다.

최악의 사태에도 미얀마인들이 버틸 수 있는 건 서로의 온기 때문이다. 다시 문을 연 편의점은 물건 가격을 지진 이전처럼 받았다. 사재기 현상도 없었다. 한 식당 앞에서는 길게 줄을 늘어선 모습이 목격됐다. 앞자락에서 식당 종업원들이 무료로 주민들에게 도시락을 건네주고 있었다. 30대 여사장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미얀마에 구조단을 파견한 희망친구 기아대책 미얀마지부 관계자는 “여진이 거의 네 시간마다 이어진다”며 “물과 먹을 것, 매트리스, 모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달레이=위문희·이도성 기자

극우 대선주자 르펜 징역형... 트럼프 “5년 전 미국 갈아”

(프랑스 제1야당 RN)

자금유용 혐의 유죄, 피선거권 박탈 이탈리아·헝가리 등 극우동맹 반발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유력 대선 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파리 형사법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르펜 의원이 유럽연합(EU)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4년에 벌금 10만 유로(약 1억5000만원)를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2004~2016년 르펜 의원 등 RN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유럽의회 보조금 290만 유로(약 46억원)를 당 운영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르펜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년 뒤로 예정된 대선 출마는 불투명하다. 프랑스 현행법상 징역형이나 벌금은 항소 기회가 남아 있는 한 무죄로 간주하지만, 법원이 내린 ‘선거 출마 금지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최소 1년이 걸리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르펜 의원은 선거에 출마



지난달 31일 방송 출연 중인 마린 르펜. 그는 이날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AP·연합뉴스]

할 수 없게 됐다.

르펜 의원은 프랑스 극우의 상징이자 RN의 전신인 국민전선(FN)의 당수였던 장마리 르펜의 딸로 정계에 입문한 후 불법 이민 정책을 내세우며 당 지지율을 이끌어왔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33.9%, 2022년엔 41.5%를 득표해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총선에서 RN이 123석을 차지해 제1 야당

으로 거듭나며 르펜 의원은 차기 유력 주자로 떠올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RN은 탐욕스러운 방식의 조직으로 르펜이 모든 이슈나 선거 전략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다”며 “(르펜의 부재로) RN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다”고 짚었다. 르펜의 후임으로는 올해 서른 살의 조르당 바르텔라 RN 대표가 거론된다.

유럽의 극우 동맹들은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르펜 의원을 지지했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는 이날 프랑스 법원 판결을 비판했고,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X(옛 트위터)에 “내가 마린이다”라며 지지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르펜 의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큰 문제”라며 “많은 사람이 그녀가 무엇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르펜 의원이) 유력 후보지만 5년간 출마가 금지됐다”며 자신이 2020년 대선에서 형사 기소됐던 상황을 언급하며 “꼭 5년 전 미국 갈다”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

미, 반도체 보조금안 늘리고 기업 투자 확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배정받은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추진하면서 이미 약속한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익명의 소식통 8명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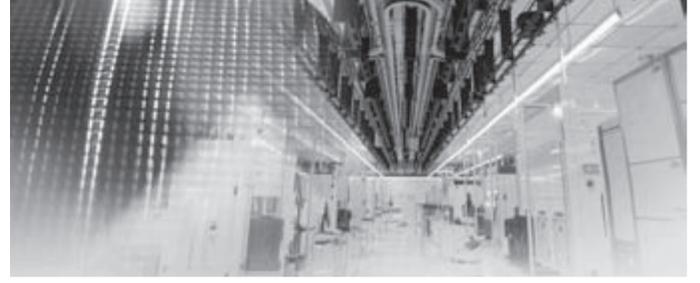
러트닉 상무장관은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할당받은 기업들이 미국에 1천억달러 추가 투자를 발표한 대만 TSMC의 전철을 밝기를 원한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보조금 규모를 늘리지 않고도 수백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이들은 전했다.

상무부 실무팀은 이미 합의된 보조금 지급을 폐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고 일부 소식통은 말했다.

동시에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법에 의거해 제공되는 최대 25%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데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에 직접적인 자금 지원보다 더 큰 가치가 있지만 세액공제 변경을 위해선 의회 조치가 필요하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스스로 “할인 혜택”이라고 불렀던 반도체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 기준 공개... “국가 안보 최우선” (CG) [연합뉴스TV]

백성호 CPA, MBA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백성호 공인회계사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아리랑 USA 공동체
 Arirang USA Community

아리랑 무궁화길 1주년 기념
무궁화 축제

한국의 식목일을 맞아 미국 메릴랜드 주립공원인 파탐스코 벨리의 무궁화 동산에서 조기중 총영사님을 비롯, 지역 인사들과 Dave Ferraro Executive Director of PVSP, Rob Dyke, Park Manager 등 파탐스코 벨리 스테이트 파크 분들 30여명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무궁화 동산에 35개 무궁화 나무를 식수하고 나라 사랑 무궁화를 아끼는 마음으로 입양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고 무궁화 나무를 나누어 드립니다.

- 일시** 2025년 4월 5일 (토) 오전 10시
- 장소** 파탐스코 벨리 주립공원 내 무궁화동산
8020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 문의** 무궁화 동산 조성위원장: 권명원(301)385-9821
부위원장: 이선옥(410)598-3321
부위원장: 폴 정(443)355-7771



- 한판 풍물패 공연
- 한가정 한그루 무궁화 심기 일환으로 무궁화 나무 입양하실 분 선착순 25명



주최: **아리랑 USA 공동체**
 Arirang USA Community

회장 장두석 Tel: 443-692-7968

‘역대 최장’ 윤 탄핵심판, 4일 선고일 지정 왜

현재 38일간 평의, 박근혜 때의 3.5배 재판관들 장고에 각종 추측 난무 지난주 평의 짧게 하거나 건너뛰어 결론 일찍 내고 문구 다듬었을 수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은 당초 ‘3월 14일’ ‘3월 21일’ 금요일이 될 것이라 예상이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가 변론 종결로부터 각각 14일·11일 후 금요일에 이뤄진 전례 등이 근거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최종변론 이후 38일간이란 역대 최장 평의를 하면서 각종 기록을 양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3.5배다. 소수일부터 총심리 기간은 111일로, 노무현 63일·박근혜 91일보다 각각 48일·20일 더 길었다. 윤 대통령 심판은 11차 변론 동안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17차 변론에 증인 26명을 신문한 박 전 대통령보다 변론 횟수는 적었지만 이후 평의가 길어졌다.

8인 재판관들의 장고(長考)가 역대 최장 기록을 연일 경신하면서 각종 추측도 난무했다. 특히 지난달 21일 선고

까지 무산돼 4월 선고가 가시권에 들어온 뒤론 “재판관들의 의견이 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당시 재판관의 기각·인용·각하 의견이 5(4대 1):1:2로 네 갈래로 갈린 것도 이같은 추측에 힘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최근에는 이 같은 배경 속에 ‘재판관 5대3 교착설’까지 부상했다. 8명의 재판관 중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3명이면 현재는 인용 정족수 6명 미달로 기각 결정을 해야 하는데, 5명의 재판관이 이런 결과를 피하려다 보니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추측이었다. 심지어 현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도 선고를 못 한 채 6인 체제가 되면서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하지만 현재가 이날 4일 선고를 발표하면서 마비설은 현실화되지 않게 됐다.

일각에선 현재가 결론을 일찍 내고선 결정문 문구를 정교화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재판관들이 지난주부

터 평의를 30분 혹은 1시간 이내로 짧게 하거나 아예 평의를 하지 않고 건너뛰는 날(지난달 27일)도 있었다는 점 등이 근거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평결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 주심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재판관들은 남은 사흘간 결정문의 최종 문구를 다듬는 조율 작업을 하게 된다.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참여한 8명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에 서명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 같은 최종 절차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슷하다. 다만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 일부 재판관이 기존 평결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추가 평결도 가능하다고 한다.

실제 박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3월 10일 선고 당일 오전 재판관들이 평의를 열고 최종 평결을 한 적이 있었다. 현재 관계자는 “평결은 선고 당일까지가 데드라인”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큰 틀의 결론이 정해진 만큼, 인용 여부를 뒤바꾸는 평결까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서민·양수민 기자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얼마나 걸렸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시나리오

- 인용** 윤 대통령 즉시 파면 ▶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 실시
- 기각** 윤 대통령 즉시 업무 복귀 ▶ 임기 단축 등 개헌 요구 분출할 듯
- 각하** 윤 대통령 즉시 업무 복귀 ▶ 탄핵 요건 등 둘러싼 논란 격화

윤 선고, 전원일치 나올까...

8인 재판관 합의 여부에 촉각 관례상 전원일치하면 이유 먼저 설명 소수 의견 있는 경우엔 주문부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선고까지 111일간의 역대 최장기 심리를 하면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기본적으로 6인 이상 찬성하면 각하 파면되고, 3인 이상이 반대(기각·각하)하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전원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는 ‘8대0’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파장이 큰 선고란 점에서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의견을 모았을 것이라 이유에서다. ‘판결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원칙은 현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등으로 탄핵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 선고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탄

핵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론만 공개됐다.

물론 대통령 탄핵 선고란 이유로 반드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독립된 의견을 낼 수 있고, 소수의견 역시 결정문에 기재할 수 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각각 14·11일 만에 이뤄진 것과 달리 이번엔 평의가 한 달 넘게 장기화한 점 등을 근거로 재판관들이 전원일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탄핵심판 선고는 8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일 경우 관례에 따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 요지를 먼저 읽고 마지막에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 이유에는 탄핵안에 담긴 소추 사유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에 더해 변론 과정에서 다뤄졌던 절차적·실체적 쟁점에 대한 결론도 포함된다. 소수(반대·별개)의견이 있는 경우엔 주문을 먼저 읽고 결정 이유를 설명한다.

정진우 기자

윤 파면시 ‘대선 60일 전쟁’ ... ‘광장 갈등’ 커질 수도

윤 선고 이후 정국 시나리오 파면시 여 찬탄·반탄과 대립할 듯 각하되면 야 ‘재탄핵’ 추진 가능성 기각엔 여 결집, 야 장외투쟁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지고 파면되느냐, 극적으로 직무에 복귀하느냐가 4일 판가름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다. 안갯속 정국에서 으르렁대던 여야의 시선은 이제 초읽기에 접어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쏠리고 있다. 현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대선주자로 낙점한 민주당은 곧바로 대선 모드로 전환할 전망이다. 야당 지도부 인사는 “이 대표는 파면 다음 날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만큼 이 대표의 일극 체제가 공고하기 때문이다. 야당 관계자는 “경선은 2주 반 정도로 압축해 치를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있던 국민의힘은 대선후보 선출까지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파면 직후 곧장 대선 경선에 직행하기 보다는 보수 지지층을 다독이는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붕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강성 보수층이 여당에서 이탈해 윤 대통령 중심으로 정치세력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소송 자체가 불성립하는 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이때 야권은 재탄핵을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야권 관계자는 “여전히 야권 의식은 탄핵 의결정족수에 불과 8석 모자라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을 채우기 위한 시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명태균 특검법 등 여권의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전방위 공세를 펼

가능성도 커진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비상계엄으로 잠시 수면 아래 있던 윤석열 정부의 각종 논란이 봇물처럼 다시 터져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탄핵이 기각돼도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여당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진다. 대구 지역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각하면 몰라도 기각이라면 국민의힘은 신(新)친윤계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국정 주도권을 쥐기 어려운 여소야대 구도는 여전하다.

반면에 탄핵을 자신했던 민주당으로선 현재 결정에 불복·반대하면서 극한 투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장외 투쟁을 독려하면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일 수 있다. 친명계 재선 의원은 “내선 수준의 불복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친명 중진 의원은 “최악은 5대3 기각”이라며 “마은혁 현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불발에 대한 분노 여론이 극한 시위로 표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국화·윤지원·조수빈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정승욱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김영선
연방세무사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4월 프로모션

기간 3.28.2025-4.28.2025 조건 기간내 주문 & 4월 내 설치

일시불제품사용고객 업그레이트혜택!

+ 1건 추가 렌탈 시



+ 3건 추가 렌탈 시



+ 2건 추가 렌탈 시



베스트 셀러 정수기 렌탈 계약 시
6개월 렌탈료 OFF +
후라이팬 증정



* FN601H/SA, KN501HI/SW 제품에 한함
* 5/ 6년 렌탈 계약에 한함
* 조기 소진 시 사은품 대체

안마의자 구매 시
일시불 최대 \$3,500할인/
월 렌탈료 \$20 OFF



* 30의 경우 할인율과 사은품 다름

BRAND STORE

• VA 직영점

13826 Braddock Rd #C, Centreville, VA 20121 Tel. 571-321-7776

•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P012T/G, CP-QN1401SW, CP-KN501HW, CP-FN601HA, CP-FR601HW, CP-FR601SW, CP-ACR1620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9FG

일 반 제 품 CP-ADR501UW, CP-MN031W/BK, CAC-C1020FW, CAC-AA0910FW, CWS-AO201W, CBT-IS1131REW/RRW, CBT-I1030R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패키지 상품은 사은품 적용 제외

CUCKOO

CUCKOORENTAL.COM
888.700.0425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여야, 여의도 비상대기령 ... “어떤 결론 나올지 모른다” 긴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성룡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정진욱 의원.

여당 “현재 결론에 승복하고 통합 앞장서야” 일각 “기각·각하” 주장 ... 지도부는 말 아껴 용산 “차분히 기다릴 것” 참모 “살 떨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되자 국민의힘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이제라도 헌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며 “야당은 ‘유혈사태’니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발언한 걸 지적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현재에 특정 판결을 강요하고, 일부 의원들은 불복 선언도 했다”며 “정치권은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승복을 강조했다.

친윤계에선 “기각될 것”이란 주장이 쏟아졌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재는 이제라도 각하·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썼다. 윤상현 의원은 “사기탄핵”이라며 “법리에 따라 명백하게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윤사 출신 의원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을 내놓는 등 조급하게 구니까 헌

재도 더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기각 결론이 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지도부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지 못한다”(권 위원장)거나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권 원내대표)며 말을 아꼈다.

물밑에선 “인용 가능성이 커졌다”는 불안감도 감지됐다. 최근 여론에선 3명의 재판관이 기각·각하 의견을 보이는 이른바 ‘5대 3 데드락’에 직면해 당분간 현재가 선고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을 키워 왔던 까닭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원은 “5대 3 데드락 설이 퍼졌었지만, 예상과 달리 선고 기일이 빨리 잡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각을 주장하던 재판관들이 밀려서 ‘6대 2’ 인용 결론이 난 것 아니냐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일부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4대 4기각 혹은 각하를 예상한다”(강승규 의원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현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내부에선 긴장감도 감지됐다. 한 참모는 “예상보다 선고일이 빨리 잡혀서 많은 참모가 살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여권은 현재 선고 이후 정치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비에도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 공지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소집에 즉각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급주 비상대기령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성지원 기자

야당 “내란수괴 파면” ... 천막당사 일단 유지 당내 “윤 기각·각하 땀 의원직 총사퇴해야” 한 탄핵엔 “결심한다 했지, 재탄핵이라 안해

전날까지 “한덕수 재탄핵”을 거론하며 격양됐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1일 표정엔 거짓말 같은 미소가 흘렀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기자단 공지(10시41분)보다 4분 빨리 SNS에 선고 기일(4월 4일) 통지서를 올렸고, 지도부는 채 한 시간도 흐르기 전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국회 본청 당 대표실로 모여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10시30분부터 대장동 의혹 사건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느라 회의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주재했다.

회의 후 민주당은 “장장 4개월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응답했다”며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현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당내에 감돌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일인 4월 18일까지도 선고가 안 날 수 있다는 우려와 초조감은 눈 녹듯 사라졌다.

다만 민주당은 당분간 대외적으로 신중 모드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칫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안 되니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한다”(지도부 관계자)

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4일까지 국회 내 비상대기령을 지시했다. 광화문 천막당사도 일단 유지한다. 원내지도부는 별도로 “현재 선고일까지 SNS와 언론 인터뷰에서 신중하고 절제된 언행을 해달라”고 공지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2일 예정했던 탄핵 관련 토론회를 취소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은 법제사법위원장에서 따로 모였다. 간사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선 ‘8대 0 인용’이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 중진 의원은 “끝났다는 확인증을 받기 전엔 아무도 모른다. 윤석열이 흑여라도 돌아오면 민주당은 전원 의원직 사퇴로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 일변도였던 원내지도부도 숨을 골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한 대행과 관련해선 “중대 결심이라고 얘기했지 ‘재탄핵’을 하겠다고 한 적 없다”(조승래 수석대변인)고 말했다. 야 5당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철회하지 않으면 2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4월 4일 11시! 헌법 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강보현 기자

윤 탄핵소추 사유 5개 ... ‘국회 장악’ 위헌여부 판단이 핵심

12·3 비상계엄 법적 판단, 처음으로 담길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크게 다섯 가지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국회 장악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법조인 등 체포 지시와 같은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것이다. 모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하루밤 새 벌어진 일이다. 오는 4일 공개될 윤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문에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처음으로 담기게 될 전망이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애초에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헌법이 정해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도 절차적 하자 있었다고 본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결정은 대통령 고유의 것이며, 당시 상황은 대통령 본인이 인식하기엔 국가 비상사태나 다름없었다”고 반박한다. 국무회의도 “부수적인 절차일 뿐이고, 다 적법하게 지켰다”고 맞선다. 현재는 당시 상황

이 국가 비상사태였는지, 계엄 선포를 위한 절차를 지켰는지 등 비상계엄의 실질적·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결정문에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와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로 시작되는 ‘포고령 1호’는 명백하게 위헌적이라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정치활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여러 위헌적 요소가 담긴 문서라고 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과거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

고령을 그대로 옮긴 형식적인 문서일 뿐이고, 그마저도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것”이라고 부인한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경찰을 보내 물리적으로 국회를 봉쇄하려 시도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으며, 계엄해제 표결도 방해해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내용도 소추 사유다. 별도의 의사결정 기구인 ‘비상입법기구’ 창설을 피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점, 윤 대통령이 방첩사를 통해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해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도 현재에서 다뤘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 군대·경찰을 보낸 건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며 “경고성 계엄선포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김정연 기자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순간에 곁에 있습니다.”

Cheltenham Homecare

첼튼햄 홈케어

간병인 서비스 (Homecare Services)

24시간 맞춤형 간병 서비스
환자 개인에 맞춤 경험과
정성으로 돌보는 프리미엄 케어

“신청부터 승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도와드립니다.

가족 간병인 가능 및 환영
*간병인으로 일하실 분 찾습니다.

첼튼햄 홈케어 문의 전화: **800-764-1005**

버지니아 | 펜실베이니아 | 메릴랜드 | 조지아 | 뉴저지
7501 Little River Tpke., Ste 205, Annandale, VA 22003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중보험 적용 됩니다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HANS TRAVEL

hanstravelusa@gmail.com
 문의전화 703.658.1717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버스가 필요할때?
 한스관광에 문의하세요!

HANS WORLDWIDE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VA 한스 에이전트/로컬 투어 가이드 모집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atc.davidhan@gmail.com



아이슬란드 & 그린랜드
 12박13일 8/4(월)-8/16(토)
 \$12,900 항공불포함 인솔자:재키 조



알래스카 특식 알래스카 최상품 연어회와 와인 제공
 6박7일 8/13(수)-8/19(화)
 \$3,090 항공포함 인솔자:세라 정



중앙 아시아 3국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탄/카자스탄
 13박14일 9/8(월)-9/21(일)
 \$5,290 항공불포함 인솔자:조앤 한

한스 인솔자와 떠나는 해외여행

- 항공 불포함 **인솔자**
- 4/9(수)-4/18(금) 낭만의 동유럽 9박10일 **마감**
 - 4/21(월)-5/2(금)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마감**
 - 4/22(화)-5/2(금) 고국의 봄, 맛과 멋여행 10박11일 \$2,990
 - 4/29(화)-5/9(금) 서유럽3개국 10박11일 **마감**
 - 5/4(일)-5/16(금)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마감**
 - 5/28(수)-6/9(월) 알프스 파노라마 **마감**
 - 6/3(화)-6/15(일) 아제르바이잔/조지아/아르메니아
 - 코카서스3국 12박13일 **마감** \$4,390 조앤 한
 - 6/10(화)-6/19(목)
 - 알프스 하이лай트 9박10일 **마감** \$5,095 재키 조
 - 7/1(화)-7/14(일)
 - 북유럽+발틱 13박14일 **마감** \$6,595 조앤 한
 - 7/12(토)-7/26(토)
 - 백두산+서울시투어+일본북해도 14박15일 \$5,990 **NEW**
 - 7/12(토)-7/15(화)
 - 백두산 천지 관광 딜럭스 3박4일 \$799 **NEW**
 - (연길-도문-이도백하-백두산(서파, 북파),웅정) 재키 조
 - 7/17(목)-7/25(금)
 - 북해도의 대자연-신록여행 8박9일 \$4,500 **NEW**
 - (북해도-삿포로, 니세코,도야, 후라노)
 - 7/17(목)-7/22(화) **마감**
 - 캐나다 록키 5박6일 **항공포함** \$2,190 애나 김
 - 8/1(금)-8/15(금) **마감**
 - 아프리카 + 블루 트레인 14박15일 \$16,400 조앤 한
 - 8/1(금)-8/13(수) (케냐 빅토리아폭포, 남아공)
 - 아프리카 **마감** 12박13일 \$12,900



서유럽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태리
 10박11일 9/14(일)-9/24(수)
 \$3,590 항공불포함 인솔자:애나 김



동유럽 & 크로아티아, 돌로미티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13박14일 9/30(화)-10/13(월)
 \$4,890 항공불포함 인솔자:애나 김



낭만의 동유럽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7박8일 9/30(화)-10/7(화) \$2,890 항공불포함

크로아티아 & 이태리 돌로미티 이지 트래킹
 7박8일 10/6(월)-10/13(월) \$2,990 항공불포함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8박9일 9/20(토)-9/28(금)
 \$4,795 항공불포함 인솔자:재키 조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10/19(일)-10/31(금)
 \$3,690 항공불포함 인솔자:조앤 한



튀르키예 하이лай트
 9박10일 10/22(수)-10/31(금)
 \$2,890 항공불포함 인솔자:조앤 한

- 아이슬란드 & 그린랜드 12박13일 \$12,900
- 8/4(월)-8/11(월)
- 아이슬란드 7박8일 \$6,900 재키 조
- 8/10(일)-8/16(토)
- 그린랜드 6박7일 \$5,950
- 8/13(수)-8/19(화) **추천**
- 알래스카 6박7일 **항공포함** \$3,090 세라 정
- 9/8(월)-9/21(일)
- 중앙 아시아 3개국 13박14일 \$5,290
- 9/8(월)-9/17(수) 조앤 한
- 우즈베키스탄 9박10일 \$3,990
- 9/14(일)-9/24(수) 프랑스/스위스/이태리
- 서유럽3개국 10박11일 \$3,590 애나 김
- 9/20(토)-9/28(금)
-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8박9일 \$4,795 재키 조
- 9/30(화)-10/13(월)
-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 동유럽 & 크로아티아, 돌로미티 13박14일 \$4,890
- 9/30(화)-10/7(화)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애나 김
- 동유럽 7박8일 \$2,890
- 10/6(월)-10/13(월)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 크로아티아, 돌로미티 7박8일 \$2,990
- 10/9(목)-10/18(토) 볼티모어 출발
- 캐나다&뉴잉글랜드 단종 코르스 9박10일 **마감** 인솔자
- 보스톤-세인트 존스(브런스 워)-시드니(노바스코샤)-할리팩스
- 10/9(목)-10/19(일)
- 포르투갈 맛여행 일주 10박11일 \$4,890 조앤 한
- 10/15(수)-10/25(토)
- 가을, 프리미엄 고국투어 10박11일 \$2,990 인솔자
- 10/15(수)-10/26(일)
-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3,690 세라 정
- 10/17(금)-10/30(목) 프랑스 일주 13박14일 **마감**
- 10/19(일)-10/31(금)
-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690 조앤 한
- 10/22(수)-10/31(금)
- 튀르키예 하이лай트 9박10일 \$2,890
- 11/6(목)-11/18(화)
- 네팔과 부탄 여행 12박13일 \$5,490 조앤 한
- 11/7(금)-11/19(수) 일본의 알프스-알펜투어
- +북해도 맛여행 12박13일 \$5,995 재키 조
- 11/1(화)-11/20(목) 카이로, 펠릭스, 아스완- 아부심벨-아스완
-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데이빗 한
- 11/26(수)-11/30(일)
- 멕시코기빙 코스타리카 4박5일 **항공포함** \$2,090 세라정
- 12/1(월)-12/7(일)
- 쿠바 6박7일 \$2,987 조앤 한
- 12/6(토)-12/20(토)
- 하와이+뉴질랜드+호주(시드니) 14박15일 \$6,590 재키 조
- 12/8(월)-12/20(토)
- 뉴질랜드+시드니 11박12일 \$4,950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10/15(수)-10/26(일)
 \$3,690 항공불포함 인솔자:세라 정



네팔과 부탄 여행
 12박13일 11/6(목)-11/18(화)
 \$5,490 항공불포함 인솔자:조앤 한



일본의 알프스-알펜투어+북해도 맛여행
 12박13일 11/7(금)-11/19(수)
 \$5,995 항공불포함 인솔자:재키 조

워싱턴 최초 30인승 벤츠 VIP 리무진 버스

4월5일(토) \$179 3자리 남음!!

VIP 버스로 즐기는 뉴욕 + NY 허드슨 런치 크루즈

2차!



볼티모어 출발 오션뷰 \$1340

잡스톤/올랜도/마이애미/삿소

바하마 크루즈

2026년 1/16(목)-1/24(토) 8박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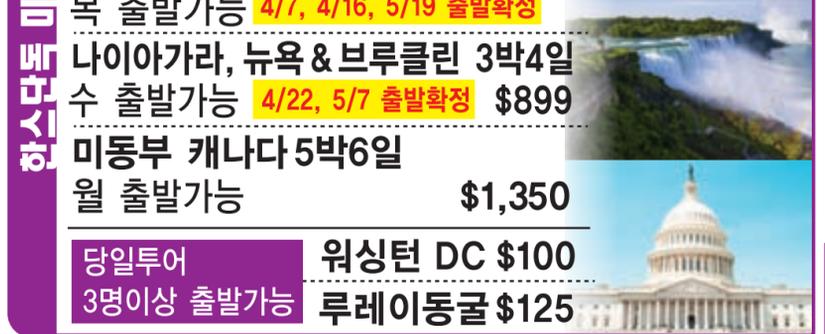
인솔자 동행



8명이상 출발가능 **미리 예약 하세요!**

- 뉴욕 1박2일 \$399
-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650
- 목 출발가능 4/7, 4/16, 5/19 출발확정
- 나이아가라, 뉴욕 & 브루클린 3박4일
- 수 출발가능 4/22, 5/7 출발확정 \$899
-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 월 출발가능 \$1,350

당일투어 워싱턴 DC \$100
 3명이상 출발가능 루레이동굴 \$125



서부4대개년 5박6일
 일요일 출발 \$990 항공 불포함

미서부 일주 8박9일
 일요일 출발 \$1,540 항공 불포함

엘로스톤 3박4일 5월19일 부터
 매주월,금 출발 \$950 항공 불포함

캐나다 록키 4박5일
 \$1,190 항공 불포함

알래스카 6박7일
 월요일 출발 \$1,790 항공 불포함

코스타리카 연합투어 2명이상 출발가능
 5박6일 \$1,300 항공 불포함 **월요일 출발**

모든 옵션 포함!!

고국의맛! 가을 프리미엄 고국투어

10/15(수)-10/25(토) 항공 불포함

제주포함 전국일주 10박11일 \$2,990
 제주불포함 내륙일주 8박9일 \$2,390

서울-전주-여수-남해-거제-외도-부산-경주-포항-안동-속초-제주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타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헌재 선고 전 승복 선언 먼저해야”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자

찬탄·반탄으로 나라갈기갈기 찢겨
선고 뒤 유혈사태나 폭동 없어야

헌재 결론에 반대하는 건 내란행위
원로들도 승복 선언 위해 나서야

“헌법재판소의 선고일까지 남은 시간 안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 사회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더 이상의 유혈 사태는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예고된 가운데 성낙인(75) 전 서울대 총장은 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혈 사태’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헌재 대한민국은 탄핵 찬성·반대로 갈기갈기 찢어진 형국이다”며 “지금처럼 찬반 여론이 폭발적으로 맞서는 상황에선 정치인을 비롯해 학계·종교계 등에서 국가 원로들이 적극 승복 선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2018년 제26대 서울대 총장으로 재임한 그는 25년간 25편을 발행한

『헌법학』의 저자다. 국내 헌법학계의 권위자로 통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양쪽 모두에서 불복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윤 대통령 구속 때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재현도 우려된다.

“1987년 마지막 헌법 개정 뒤 이뤄진 네 차례 정권 교체 과정에서 보수·진보 양측 진영에 쌓였던 갈등이 총체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정권이 교체된 쪽에서 온갖 권력을 한꺼번에 잃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날에는 반대 여론이 지금보다 약했는데도 사망자가 4명이나 나왔다. 이번 탄핵 선고 때 유혈 사태나 폭동적인 상황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 탄핵 찬성·반대 모두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나랏일 때문에 선량한 시민이 희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태 방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일까.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지도자가 나서서 탄핵에 승복할 것이라는 선언을 헌재 결정까지 남은 시간 안에 해야 한다. 물론 지금처럼 탄핵 찬반 여론이 폭발적으로 맞서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치 지도자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진 않다. 하지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종교계 최고 지도자들을 비롯한 국가 원로들도 적극적으로 승복 선언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불복하는 게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저항권은 헌법상 제도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때, 주권자인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무기다. 윤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민이 인준한 헌법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헌재가 결정한다.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재가 헌법상 제도와 절차에 따라 내린 결론을 반대하는 것은 내란 선동 행위이지, 결코 저항권 행사가 될 수 없다.”

-헌재 결정 뒤에도 야당의 줄탄핵, 대통령 계엄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단 지적도 있다.

“1987년 개정된 헌법 체제가 이제는 끝났다는 뜻이다. 30년 전 현행 헌법상 대통령, 총리, 국회 다수과의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구현 가능한 헌정실체를 6개 모델로 소개한 적이 있다. 가설로 뒀던 마지막 여섯 번째는 단일 야당이 국

회의 다수가 된 경우다. 이 가설이 지난해 현실화했다. 여기에 적용했다면 87년 헌법 체제가 생명력을 이어갔지만, 여야 모두 여기에 적응하지 못했다. 그 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으니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헌법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권력을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

-개헌은 어떤 방향으로 돼야 하나.

“경우의 수를 탄핵심판 인용과 기각으로 나눠보자. 만약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그날로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통령선거를 해야 한다. 그 기간 여야 지도자가 새로운 공화국 헌법을 만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국민이 의원내각제를 원하면 대통령직선제가 없어지겠지만, 국민은 여전히 직선제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권력 분산적 대통령제 또는 이원정부제(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결합)가 있다. 이원정부제는 의회의 다수파로부터 지지를 받는 내각의 형태다. 국회에 내각 불신임권을 주는 식으로 야당의 독주를 막는 것이다. 기각된 경우에도 대통령과 여야 수뇌부가 즉각 만나서 올해 안에 개헌하기로 논의해야 한다.”

김선미·나운채·서지원 기자

한덕수 만난 4대그룹 총수 “관세 협상 총력 기울여달라”

(삼성·SK·현대차·LG)

한대행, 총리공관 안내하면서 환대
총수들 “기업도 국익차원 협조할 것”
세계 지원 등 대책 마련도 요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총수가 처음 회동했다. 2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서다.

한대행은 1일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만나 ‘경제안보전략 TF’ 첫 회의를 열었다. 한대행은 이재용 회장에게 직접 길을 안내하거나, 정의선 회장의 손을 두 손으로 잡는 등 총수들을 환대했다.

이날 회동은 트럼프가 관세 발표를 예고한 2일 직전에 이뤄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직후이기도 하다.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한 한대행과 개별 기업만으로 통상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정의선 현대차그룹·이재용 삼성전자·최태원 SK그룹·구광모 LG그룹 회장, 한대행, 조태열 외교부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슈 대응에 한계를 절감한 4대 그룹의 뜻이 맞아떨어졌다. 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며 “회장님들이 대표하시는 각 분야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보완, 강화하는 쪽으로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은 반도체법 보조금 문제가 급하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37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보조금(47억4500만 달러)을 트럼프 정부가 지급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2차전지(삼성SDI) 사업도 IRA(인플레이

션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여부가 중요하다. SK도 반도체(SK하이닉스)와 2차전지(SK온) 사업에서 삼성과 같은 속제를 안고 있다.

현대차는 관세 이슈가 보다 직접적이다. 이미 지난달 12일부터 미국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3일부터는 미국이 수

입 자동차에 관세 25%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347억4400만 달러다. 이 중 미국 수출이 707억8900만 달러로 절반(49.1%)을 차지한다. 정의선 회장이 지난달 24일 백악관에서 “향후 4년간 210억 달러(약 31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정도로 트럼프 정부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LG는 미국 시장 1위인 ‘백색 가전’ 분야에서 고민을 안고 있다. LG전자의 주요 생산기지인 멕시코에 트럼프가 두 차례 유예한 25% 관세를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세타기에 20~50% 관세를 무는 등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경험했다. 2차전지(LG에너지솔루션) 분야에선 삼성·SK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정부 측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향후 경제안보전략 TF를 민간(계회)도 참석하는 식의 민간 공동 대응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기환·박대인 기자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희스프링 아동 가족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능,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상담진료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703-259-5617, 410-241-2520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헬렌 서

의대 정원 늘렸더니... 올해 신입생 30%가 '3수 이상'

39개교 중 1429명, 4수 이상 653명
올해 증원 규모인 1509명과 비슷
“홀로 수업 들었다가 짝할까 눈치”

올해 입학한 의대생 셋 중 한 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상 지난 ‘늦깎이 신입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와 대학 졸업자들까지 가세한 의대 풀림이 맞물린 결과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39개의 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 제외)에 입학한 신입생(4641명) 중 고 3 수험생(2025년 2월 고교 졸업자)은 1887명(40.6%)이었다. 2024년 2월 고교를 졸업하고 올해 의대에 합격한 재수생은 1325명(28.5%)으로 집계됐다.

2023년 2월 또는 이전에 고교를 졸업하고 올해 의대에 입학한 인원은 1429명으로, 의대 신입생의 30.8%였다. 삼수 이상에 해당하는 이들은 올해 의대 정원의 증원 규모(1509명)와 엇비슷한 규모다. 지난해 삼수 이상 합격자(876

명)에 비해 553명 늘었다. ‘삼수 이상’ 신입생(653명)도 지난해(364명)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학교별로 보면 삼수 이상 신입생의 비율이 33.3%를 넘는 의대가 18곳에 달했다. 특히 올해 정원을 늘린 지역 소재 의대들에 많은 편이다. 을지대(50%)·영남대(46.6%)·인제대(46.2%) 등은 삼수 이상이 신입생의 절반 정도였고, 제주대(36.1%)·건양대(32.1%) 등은 삼수 이상이 30%가 넘었다.

실제로 올해 의대 신입생 중엔 이미 대학을 졸업했거나, 취업 중 입학한 이들이 어느 해보다 많다. 나이 등을 고려하면 빨리 수업이 정상화되길 바라지만, 집단 휴학하던 의대생 대부분이 복귀한 요즘도 수업 거부 등을 주장하는 선배들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처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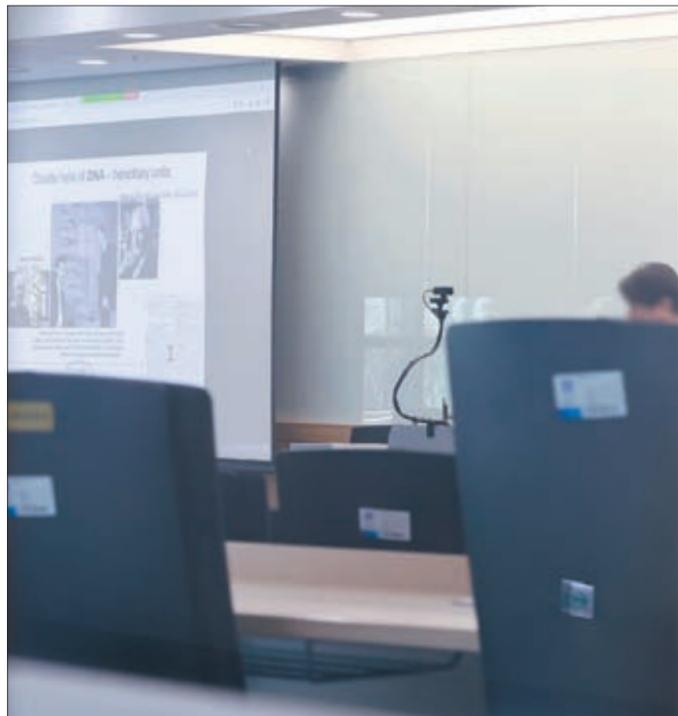
30대인 A씨는 직장 생활을 하다 올해 비수도권 의대에 25학번으로 입학했다. 그는 “사정상 하루 빨리 졸업해야 하는데, 홀로 수업을 들었다가 동기 선배들에게 짝할까 봐 눈치를 보고 있다”며 “의대 증원 소식에 대학 졸업 후 몇

년 만에 밤잠, 주말을 반납해 공부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맞는 일인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수도권 외의 한 의대에 입학한 B씨도 “선배들로부터 ‘배신자’가 돼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의사로서의 시작이 더 늦어지는 것 중 무엇이 더 손해일까 계산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 시한인 지난달 31일 기준 의대생의 복귀율은 96.9%로 집계됐다. 35개 대학은 100%, 4개 대학은 90%대의 복귀율을 보였다. 반면 인제대(복귀율 24.2%)에선 370명이 등록 거부 의사를 밝혀 제적 예정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날 상당수 대학에선 학생회를 중심으로 등록 후 휴학, 수업 거부 등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교육부 측은 “수업 상황을 살펴본 후 대학 총장, 의대 학장 모임과 협의해 모집 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등록 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후연·이보람 기자



의대 '온라인 수업'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40곳 중 39곳의 의대생 전원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1일 서울시내 한 의대 강의실에서 교수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국가경제 부정적”

한덕수 “이사의 적극적 경영 저해”
여야 합의한 연금법 개정안 공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업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돼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한 대행은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상장 기업에 한해 합병 등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회에 주주 이익 보호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전국 100만여 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반면에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은 2600여 개 상장 법인에만 적용된다. 한 대행은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관례도 축적돼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거부권 행사에 앞서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

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먼저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병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공포 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한 대행은 지난달 20일 여야 합의로 모수 조정(보험료율 13%·소득 대체율 43%) 뒤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박태인 기자

“좀비불씨엔 헬기보다 낫다” 천왕봉 지킨 7.5억원 진화차

‘고어텍스 낙엽층’ 헬기 진화 어려워
물탱크 일반차의 4배, 호스도 고성능

“사흘 동안 헬기가 수십만L(리터) 물을 퍼부어도 못 끈 지점도 하루 만에 잡았다.” 경남 산청·하동 산불 현장에 투입됐던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 박준호(44) 대원이 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한 말이다. 20년차 산불 진화 베테랑인 박 대원은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을 통한 지상 진화가 없었다면 산불이 더 길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진화 과정에서 헬기를 통한 ‘공중전’ 이상의

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통한 ‘지상전’ 효과가 컸단 말이다.

산림청·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 현장에서 ‘진화 주역은 헬기’라는 공식이 통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한다. 진화 작업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산청·하동 산불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지면서 역대 두 번째 긴 산불(주불 진화 기준)로 기록됐다.

특히 구곡산에서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까지 이어진 지리산 권역의 불길 이 애를 먹었다. 최대 1m 높이로 쌓인 낙엽 더미가 물 흡수를 막는 ‘고어텍스’

역할을 한 탓이다. 헬기가 쏟아낸 물 폭탄을 그대로 흘려보냈다. 이 때문에 낙엽 속 숨은 불씨는 헬기 진화 때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바람이 불면 되살아나길 반복했다. ‘좀비 불씨’라고 불린 이유다. 또 헬기는 시야 확보 탓에 낮에 투입하는데, 연무 때문에 일출과 동시에 곧장 뜨지 못한 적도 있었다.

이때 불길을 잡은 게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그리고 고성능 진화차였다. 불길이 잘 보이는 야간에 지리산 권역에 숨은 불씨를 직접 찾아가 켜다. 지리산 주봉인 천왕봉 아래 4.5km 지점까지 화마(火魔)가 접근, 산



지난달 25일 경북 안동시 산불 현장에서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이용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산림청]

림 당국의 애간장을 녹인 지리산국립공원 불길도 마찬가지로였다. 밤샘 야간 진화로 천왕봉도 지켰다. 산림청은 이번에 대형 산불이 발생

한 경남·북 지역에 보유 중인 고성능 진화차 29대를 모두 투입, 헬기 진화가 어려운 현장에서 지상전을 펼쳤다.

안대훈·김민주 기자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GALAXY REALTY **갤럭시부동산**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목	주소	기간	세입자
1610 Westmoreland Ct, McLean, VA SALE	16309 Sandy Bottom Woodbridge COMING SOON	9490 VA Center Blvd, Vienna, VA SOLD	1474 Hampton Hill, McLean, VA SOLD
매매 및 렌트	12495 Cliff Edge Dr, Herndon, VA SOLD	10** Salt Meadow, McLean SOLD	사업체 매매

리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확정

정부, 구조개혁 박차가 가할 듯 자동조정장치 도입 두고 '옥신각신'

정부가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향후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아우르는 연금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를 조정 등 모수개혁으로 구조개혁을 위한 시간을 어느 정도 벌였지만 연금 개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은 만큼 구조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개혁으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점을 감안해 '세대 통합'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정부, '새판짜기' 구조개혁 나설 듯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법적으로 결실을 봤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4.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올리는 등 '더 내고 더 받는' 식으로 숫자를 바꾼 모수개혁과 함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크레딧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늘려 시간을 번 만큼 정부는 향후 구조개혁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은 숫자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 기초·노후생활의 바탕이 되는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하는 것으로, 모수개혁 못지않게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특히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바꾸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사이에서 상

당한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줄기차게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자동삭감장치'가 될 것이라며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 "청년에 불리" 주장에 '세대 통합'도 과제

길게 내다봐야 하는 구조개혁도 문제이지만, 그 전에 당장 꺼야 할 '급한 불'도 있다. 모수개혁 직후 불거진 '세대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30·40대 여야 의원 8명은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혁이 청년에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전국대학총학생회도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런 '세대 갈등'은 현재 연금 수급자들도 소득대체율 상승의 혜택을 누린다는 오해가 퍼지면서 확산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적용된

다. 현재 연금 수급자들도 함께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는 게 아니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개혁하지 않았다면 청년층에게 더 불리해졌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일례로 올해 20세인 2006년생들은 개혁하지 않을 경우 연금 기금이 고갈됐을 2056년 이후 30% 안팎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14.3%가 된다.

그러나 이번 개혁으로 연금 기금이 2071년까지 유지돼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12.7%로 내려가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오른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해소됐다.

정치권은 지난주 구성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30대 젊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함으로써 향후 청년·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청년층을 포함해 각 계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심리종결...선고 미정

2회 공판으로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오는 6월 3일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고 이같이 정했다. 2심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 첫 공판을 열어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듣고 김진성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선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도 재생한다.

이어 6월 3일 두 번째 공판에서 과거 이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신모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측과 이대표 측의 최종 진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 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하겠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종결할 때 정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신 이날 다른 법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에 자신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

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의사시험 문제 유출 448명 무더기 적발

부정행위시 합격 무효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 4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3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5개 대학 의대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실기시험 응시자 3천

212명 중 13.9%에 달한다.

이들은 먼저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이 실기시험 문제를 복원해 취합한 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아직 시험을 안 본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시 실기시험은 통상 응시자를 하루 60~70명씩 나눠 9~11월 두 달여에 걸쳐 치러진다. 5개 대학 의대생 대표들은 시험 한 달 전인 2023년 8월 부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해 11월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경상국립대의대 학생회 간부 출신 의사 6명을 지난해 11월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송치된 응시생 대부분은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이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면서 현재는 무직이거나 군인 신분인 이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실기시험 부정행위 실태 등을 통보하고 국시원에 관



의학도서관에 놓인 의사국가시험 교재

[연합뉴스]

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부정행위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무효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 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 처리된 자에 대해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그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 내로 제한할 수도 있다.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1.2 M

Corner Lot
Many Upgraded

웃브리지 타운홈



\$495,000

방3, 화3.5
Lake Ridge 커뮤니티

COMING SOON 리스팅

굿 로케이션 집 수리중입니다.

- * Annandale 싱글 홈 \$890,000
- * Springfield 싱글 홈 \$800,000
- * South Riding 싱글 홈 \$1,2M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우리말 바꾸기

‘꽃망울’ 이 아니라 ‘꽃방울’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계절이다. 더불어 꽃가루까지 흩날리기 십상이다. 이런 때가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에게는 괴로운 시기다. 재채기-콧물 등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인터넷에는 이럴 때 응급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소개돼 있다.

“콧물이 흐르거나 코막힘 증상이 심할 땐 손가락 끝으로 양쪽 콧망울을 짚을 지그시 눌렀다 떼기를 몇 차례 반복하면 효과가 나타난다.” 코끝 양쪽으로 둥글게 방울처럼 내민 부분을 가리킬 때 이처럼 ‘콧망울’이라 쓰곤 한다. 눈알 앞쪽의 도톰한 곳이나 눈동자가 있는 곳을 뜻하는 ‘눈망울’, 아직 피지 않은 어린 꽃봉오리를 가리키는 ‘꽃망울’ 등을 연상해 ‘콧망울’로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꽃방울’이 바른 말이다. 코끝이 두 개의 방울이 달려 있는 것같이 생겼다는 점에서 ‘꽃방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꽃방울을 별름거리며 웃었다” “꽃방울이 크고 두둑해 야복이 있다” 등처럼 사용된다.

“꽃볼이 너무 넓고 두툼해 고민이야”처럼 ‘꽃방울’을 ‘꽃볼’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은 유독 코평수가 커”처럼 ‘코평수’라 말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꽃볼’ ‘코평수’는 사전에 없는 말로, 모두 ‘꽃방울’로 바꿔 써야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K컬처에 빠지다

산신도 호랑이와 기아 타이거즈



로버트 터리
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 회장

고 진정성을 강조한다. 그 예술 작품들이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세계인들에게 직접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유다.

무당들은 문화적 기억을 지켜낸다. 호주 원주민들은 수천 년 동안, 어쩌면 빙하기 이전부터 300 개 이상의 언어 그룹에 속한 100만 명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노랫길(Songlines)’을 유지해왔다.

세속화는 발전을 가져오지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그것이 고대 역사와의 연결을 단절하고, 모든 문화가 공유하는 원형적 상징들을 통해 형성된 우리의 공동 정신과의 유대를 끊어버릴 수도 있다.

한국 샤머니즘의 예술과 문화는 한민족의 가장 깊은 뿌리에서 비롯되었다. 무당의 다원적 성격 체계 중에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토착적으로 발생한 신들이 존재한다.

산신(山神)이나 독성(獨聖) 같은 신령들은 한국 고유의 신들이다. 이들과 관련된 의식과 신화를 연구하면 한 민족의 기원과 그 민족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산신도(山神圖)는 이를 잘 보여주는 예다. 이 그림들은 대개 산신과 한국 민속에서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는 호랑이를 함께 묘사한다. 한때 한국의 산과 들을 누비던 호랑이는 이제 멸종되었지만, 이 그림들은 한국 전역을 누비던 호랑이의 흔적과 그들이 사람들의 상상력과 신앙에 끼친 깊은 영향을 오늘날까지 전해준다.

지난해 한국 프로야구(KBO)에서 우승을 차지한 기아 타이거즈를 비롯해, 한국에는 ‘타이거즈’라는 이름을 가진 스포츠 팀들이 많다. 나의 고향팀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Detroit Tigers)도 마찬가지다. 디트로이트에서는 호랑이가 로고나 인형 속에만 존재하는 먼 환상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에서는 호랑이가 민족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으며 훨씬 깊은 의미를 지닌다. 샤머니즘 예술이 제공하는 이러한 고대 유산과의 연결이 유지될 때, 그 의미는 더욱 커지고 더욱 깊이 느껴진다.

그러나 다음번에 기아 타이거즈나 한국의 모든 타이거즈 팀을 응원할 때, 그 원초적인 정신을 느껴보라. 그리고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더 큰 의미와 충만함을 가져다주는지를 기억하길 바란다. (이 글의 일부는 곧 출간될 로버트 터리의 회고록 『잉크타운(Inktown)』에서 발췌되었습니다.)

이야침에

그대 있음에 내가 있으니



이기희
Q7 파인아트 대표·작가

에 문풍지 해져도 사랑은 얼어붙은 심장에 파스 한 피를 돌게 한다.

사랑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해답이다. 사랑은 천만 개의 언어와 백만 개의 꽃송이로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의 꽃을 피운다.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쳐도 사랑은 사랑을 위해 길을 터준다. 내 것이 아닌 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 타인의 존재가 내 삶의 무게와 합해진다. 사랑은 길이가 아니라 무게다. 가슴 뚫고 지나가는 바람이 허수아비라 해도 사랑은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영원히 그대를 기다린다.

산다는 것은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을 땅에 굳건히 딛고 누군가를 위해 빛이 되고 그림자가 되는 일이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넘치지 않는 사람으로 서로의 가슴을 끈으로 묶는다.

길을 떠났다. 빈자리를 채워 줄 무엇인가를 찾기로 했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연민과 그리움으로 가득 찬, 손에 잡힌 연날리기 줄을 놓아버리면 사는 것이 한결 자유로워진다. 뒤척임을 끝맺으면 별들이 어둠과 작별하는 새벽이 온다.

다시 시작할 무엇이, 사랑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행복인가.

존재하는 것들의 은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대 있음에 내가 있다면 나의 존재는 살아가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존재(存在)’는 정신적인 ‘존(存)’함과 물질적인 ‘재(在)’함을 포괄하는 단어다.

실존하는 모든 것은 존재한다. 존재는 실존의 객관과 주관관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눈을 뜨면 다시 저녁이 오기를, 하루가 시작되지 않기를 바라는 아픔으로, 기대도 희망도 없이 허무의 일기장에 낙서하며,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묻는다 해도 살아있는 것만큼 소중한 기적은 없다.

집 철저히 잘 봐드립니다. 믿고 맡겨보시면 아십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맥클린지역, 비엔나 지역 고급 주택 전문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베데스타, 락빌 고급 주택 전문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한국 기업 미국 진출시,
미국주정부에서 제공하는 Investment incentive process, IRA 법안 관련과 New market tax credit 도와 드립니다.
미국 시장 진출 전 지역 정하기 전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 한국 기업 전문 •

승경호 추천 매물

<p style="text-align: center;">창고</p> <p>VA 리즈버그 데이터센터주변 창고 3500 SF, 로딩덕 1개, 월 \$6,500</p>	<p style="text-align: center;">상가 임대수입</p> <p>버지니아주 비엔나, 상가 8백만불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p>	<p style="text-align: center;">아파트 투자</p> <p>월7천불 수입 메릴랜드 아파트 유닛3개, 77만불 메트로 300피트, 좋은 투자상품</p>
<p style="text-align: center;">식당했던 빈자리</p> <p>메릴랜드 락빌 좋은 조건의 식당했던 빈자리, 3800 SF</p>	<p style="text-align: center;">메릴랜드주 발티모어 상업건물(임대수입)</p> <p>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p>	<p style="text-align: center;">월 5천6백 수입, 75만불</p> <p>버지니아 아파트 유닛 4개 군부대, 오래가질만한 투자상품</p>

미국 전역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디씨
용도부터 시설 설비, 기업 컨설팅 모두 도와드립니다

맥클린, 에난데일, 컬럼비아에서 언제든 만나서 리스팅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사자

www.dwellwashington.com

“부채 ‘1경원’ 눈앞인데 땀질 처방... 자식들 좀 생각하자”

강찬호의
뉴스메이커

논설위원



“여당 의원 108명 중 절반 넘는 56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졌어요. 전례가 없습니다. 이걸 아버지가 아들 지갑에서 돈 빼 쓰고, 아들은 굶어 죽어도 모르겠다는 처사예요.”

정부가 보험료율(내는 돈)을 13%,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각각 올리는 골자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했다. 이 장면을 누구보다 착잡하게 지켜본 이가 있다. 지난 달 21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에서 사퇴한 박수영 의원(재선, 부산 남구)이다. 그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짚짚한 보직을 스스로 그만둔 박 의원을 그의 국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지도부 “억울하면 내가 대표해”

-사퇴하는 극약처방을 할 만큼 절박했나요.

“특위 위원들을 매주 모아 학자들 초청해 3시간씩 12번에 걸쳐 36시간을 공부했어요. 국회에서 국민연금을 가장 잘 아는 조직이 됐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지도부에 보고했는데 강그리 무시하고 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주장 관박이나 다름없는 안에 합의해준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 심경에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건 ‘청년세대 착취법’입니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고정해도 연금 고갈을 못 피하는데 이걸 43%로 올린 데다 자동조정장치마저 뺐으니 재정 파탄이 불 보듯 합니다. 민주당에 ‘여야가 특위를 만들어 한두 달이라도 공부한 뒤 결론을 내지’고 촉구했는데 그들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자’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런 안을 발의한 의원이 3명이나 돼요.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45%를 주장했어요. 민노총 주장과 똑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갖은 고생 끝에 40%로 내린 소득대체율을 민주당이 올리는 데 앞장섰으니 노 대통령이 하늘에서 뭐라고 할까요. 여론이 좋지 않으니 민주당이 결국은 43%로 내렸지만, 그밖엔 민노총 주장을 죄다 받아줬어요. 기금이 고갈되면 정부가 세금으로 메꾸라는 요구를 받아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부가 메꾸려면 연금 개혁



경부지사 시절 행정관료 출신인 박수영 의원은 “여야 밀실함으로 개혁이 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내년 1월 1일 발효되기까지 9개월의 시간이 있다. 김재섭 의원 등 30대 의원 3명을 여야 연금특위에 투입한 만큼 이들이 독소조항을 없애 개혁안을 개선하도록 당정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동 기자

“소득대체율 3%p나 올려 연금 고갈 불 보듯 지도부, 특위 의견 무시하고 야당과 ‘밀실합의’

을 할 이유가 없어요. 연금공단은 보험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점에서 사회주의나 다름없는 조직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부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장기적으로는 ‘경’ 단위가 될 거라고 해요. 당장 지금 적자만 3000조원에 달합니다. 국민 한명 한명이 연금을 받다 어느 나이에 숨진다고 가정하면, 그때까지 받을 돈의 총액(총당 부채)이 그 정도 돼요. 이걸 정부가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5번 넘게 지도부에 보고했고, 의총에서 15분 특강까지 했어요.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니까 표결에서 그 많은 의원이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거예요.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인데 여야를 떠나 84명이 반대나 기권한 건 초유의 일입니다.”

-지도부 반응은 어땠나요.

“지난달 21일이었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자동조정장치 수용 거부’를 선언했기에 합의가 될 리 없다고 여겼는데 오후 2시에 열기로 한 본회의가 돌연 2시간 연기되더군요. 이 사이에 양당 지도부가 몰래 만나 전격 합의한 거죠. 국회의장도, 양당 원내대표도 광을 내고 싶었는지 밀실 합의를 한 거예요. 지도부에 항의하니 ‘당신이 3선 의원 돼 원내대표 되면 바뀌려’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양당이 합의했으니 거부권 행사는 반대합니다. 내년 1월 1일 발효까지 남은 9개월 동안 변화를 끌어내려고 조만간 출범할 국회 연금특위에 3040 의원들을 투입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여당 특위 위원 6명 중 절반인 3명이 김재섭·이용태·우재준 등 개혁안에 반대한 30대 의원들이죠. 반면 민주당은 특위 위원 7명 중 30대 의원이 1명뿐인데 다 기권한 의원 1명 빼면 6명 모두 찬성한 이들이예요. 이걸 보면 민주당은 위원회 시늉만 하다가 접으려 할 겁니다. 21대 국회 때도 연금특위 19개월 끝다가 빈손으로 끝냈거든요.”

청년들 “여당 믿었는데 지지 철회”

-민주당이 왜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에 소극적일까요.

“청년들은 ‘아버지가 아들 지갑 뜯어가는 악법’이라고 난리예요. 힘들게 번 돈 연금으로 냈다가 나중에 못 받을 거란 불안감이 엄청나요. ‘국민연금 청년 행동’이란 청년 단체가 있는데, 국회에서 내 주선으로 4번이나 기자회견을 하면서 현행 연금체계의 문제점을 폭 부러지게 짚더군요. 그런데도 여야 지도부가 개혁안을 전격 통과시키니까 이

똑똑한 청년들이 ‘여당에 실낱같은 기대를 했는데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해안타까웠죠.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은 2056년 바닥납니다. 개정해도 8년 더 연명할 뿐이에요. 지금 20~24세 청년들은 지급연령인 65세가 돼도 못 받는다는 얘깁니다. 국민연금은 장기간 고액 봉급 받은 이들이 절대 유리해요. 민노총 구성원들은 공공기관·대기업 소속이라 월급이 많고 가입 기간도 길지만,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은 보수가 낮고 이직도 심하니 받게 될 연금은 훨씬 적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주 고객은 2030 세대가 아니라, 민노총이니 그들에 유리한 연금 개혁안을 미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크게 기여한 게 민노총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 주장하는 대로 들어주는 거라고 봅니다. 일례로, 내는 사람은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려 내게 되는데 받는 사람은 내년부터 바로 43%를 받는단 말이에요.”

-타개책은 뭘까요.

“연금은 지속 가능성이 우선이에요. 민주당은 은퇴자들이 국민연금에서 기존 소득의 절반을 받으면 생활이 된다면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려면 정부 지출이나 직장인들의 부담이 엄청나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민연금에선 기존 소득의 40%만 총당하고 퇴직·개인연금에서 각각 10%씩 총당해 직장 다닐 때 소득의 60%를 은퇴 이후 지급받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활용방안을 설명해 주시다면.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부담하는데, 직장인이 퇴직할 때 목돈으로 받는 방식이라 체불되기 일쑤였어요. 따라서 퇴직연금도 직장인 재직 시 매달 은행에 적립하게 유도하고, 퇴직 후 연금 형태로 받아가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세금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면 실현이 가능해요. 개인연금도 세금 혜택으로 가입을 유도하면 수익이 나오니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와 논의했는데, 긍정적이예요. 여가다 기초연금까지 총 4개의 ‘우산’을 만들면 정부 부담은 적어지고 국민의 은퇴 후 연금은 늘어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똑같이 줄 필요가 없어요. 정말 힘든 분들은 소득 하위 25% 밑의 ‘상대적 빈곤층’이죠. 고령층이 많고 극단적 선택 비율도 높아요. 이들에게 더 많이 주는 역진적 구조로 기초연금을 개선해야 하는데 표 떨어질까 봐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담이 죄다 다음 세대에 지워집니다.”

‘친구야, 단식 그만해’, 최상목의 만류

박 의원은 지난달 2~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면서 단식 농성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단식까지 할 만큼 절박한 문제였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마 후보는 여야 합의 묶임인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뽑은 인사이니 절대 임명돼선 안 된다고 봤어요. 한데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당시)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하길래 당초엔 여당 의원 전원 하루씩 릴레이 단식을 하기로 했어요. 내가 첫 번째로 나서겠다고 했는데 언론이 ‘하루 단식은 웰빙 다이어트’라고 비판하니까 의원들이 ‘육먹을 바에 하지 말자’고 접더군요. 그런데 지난달 1일 ‘최 대행이 4일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를 지명할 것’이란 소문이 돌길래 2일 아침부터 홀로 단식에 돌입했죠. 최 대행은 서울대 법대 82학번과 행시 29회 동기로 43년 지기란 접이 무감으로 작옹했어요. 사흘 연속 단식을 이어갔더니 최 대행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 임명을 보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튿날엔 최 대행이 내게 사람을 보내 ‘수영야, 마 후보 임명 안 할 테니 단식 끊어라’고 호소하더군요. 또 존경하는 중학교 은사가 ‘살아서 싸워야지’란 문자도 보내 주셨길래 ‘이만하면 뜻을 이뤘다’고 판단해 나를 만에 단식을 중단했죠.”

4월 HOT 리스팅

매매

- 디씨 NW 건물 \$2.2M 그로서리 스토어 1층, 2, 3층 아파트
- 센터빌 타운하우스 \$60만불 방4+ 화장실3.5, 렌트 수익 \$2,900
- 레스톤 타운하우스 \$62만불 방3+ 화장실2.5, 렌트 수익 \$3,000
- 스태포드 타운하우스 \$42만불 방3+ 화장실3.5
-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80만불 방3+ 화장실3.5, 호수부, 차고 2, 렌트 \$3,600

렌트

- 애쉬번 웨어하우스 \$4,800 3800sqft, 큰 오픈 스페이스, 화장실 2개, Loading dock
- 애쉬번 타운하우스 \$3,600 방3+ 화장실3,차고 2, 입주 6월
- 철타리 타운하우스 \$3,400 방3+ 화3,5,차고 2, 입주 4월초
- 우드브리지 \$3,200 방3+ 화장실3.5, 차고 2, 입주 3월초
- 맥클린 로튼다 콘도 방2+ 화장실 2, 즉시 입주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뱃방)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시 설

4월 4일, 분열과 갈등의 끝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헌정사세 번째로 경험하는 격변의 순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을 4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밝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 5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3월 10일)에 이어 세 번째 맞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으로, 앞선 두 대통령 때 걸린 기간(63일, 91일)을 훌쩍 넘긴 최장 기록이다.

헌재가 선고일을 잡았다는 건 8인의 헌법재판관이 어느 정도 결론에 합의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정문은 선고 당일 확정될 전망이다. 그만큼 선불리 결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간에 접어들게 된다.

탄핵이 인용(윤 대통령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 6월 초 새 대통령을 맞는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직무정지 상태였던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야 대립은 격화하고 개헌 등 다양한 이슈를 놓고 정치적 격랑이 펼쳐질 것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가 격랑을 넘어야 한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다음날의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3월 10일, 분열과 갈등의 끝이어야 한다'였다. 날짜를 4월 4일로 바꿔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다. 이틀 뒤의 선고로 지금의 분열과 갈등이 화해와 승복으로 바뀔 수 있기를 대부분의 국민은 바라고 있다.

정치권도 현재의 태클을 반겼다.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선고 기일이 잡혀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자기 진영의 승리와 상대의 승

복을 바란다.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의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말했다.

선고일 결정 직전까지 정치권은 불안하게 돌아갔다. 특히 인용 대 기각(또는 각하)이 5대3의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확인되지 않은 전망에 극한 대립 상황이 됐다. 민주당은 진보 성향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주장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했고,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지명권이 있는 두 명의 후임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각이나 각하 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말까지 했다.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폭발할 수 있는 갈등 포화 상태인 여론 앞에 '유혈사태'와 같은 선동적인 발언을 던지는 행위는 정치권이 자제해야 한다.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도 전 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인근을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진공 상태'로 만들기로 했다. 헌재 인근 변경 100m가량의 농성 천막 등이 철거될 예정이다. 헌재 인근 지하철역 등에는 선고 당일 일부 출입구를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유소나 공사장 등도 선고 당일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모두가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시점에 앞에 다시 섰다.

이틀 뒤 헌정사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갈등과 반목 증폭 안 되게 성숙하게 대비해야

불리하면 다 비관세 장벽... '자국 우선주의' 미국의 얼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공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는 미국발 관세전쟁이 심상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은 보고서를 기준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해 나라별 관세 부과 계획을 2일(현지시간) 발표한다. 트럼프는 이날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지만 무역 상대국엔 혼돈과 불안의 시대가 본격화하는 날이다. 보고서는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부터 약값 정책까지 한국을 상대로 다양한 '무역장벽'을 거론했다. 대부분 이미 불만을 표했던 것들인데, '절충 교역'처럼 이번에 처음 제기한 것도 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이다. 기술 이전 등을 아예 요구하지도 말라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은 2008년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과도기적 조치가 16년간이나 유지된 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30개월 이상 소고기가 수입되면 이미 미국 소고기의 최대 수출국인 한국

시장에서 인기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망사용료 관련 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도 국내의 사업자의 규제 격차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무조건 무역장벽으로 몰아가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자제돼야 한다. 다만, 한국의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령 등 국내 기업조차 과잉 규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규제 완화 차원이나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어려운 시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이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의 경제안보전략 TF 첫 회의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 대통령은 어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도 행사했다.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한 대통령의 말처럼 임박한 상호관세 충격에 줄이려면 정부와 기업, 국민이 원팀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대 그룹을 비롯한 우리 기업도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저주받으리라, 법률가들이여”



안혜리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진영·성별·세대와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동과 탄핵소추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형사재판 과정을 지켜본 국민 다수가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거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범조 카르텔이 작동하는 전관예우의 위력,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사법과 권력의 이런 부정적 상호작용에 대해 알만큼 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 한국은 지금 범기술자들 끼리 끼리 소소한 부와 특권을 나눠 먹는 정도가 아니라 법을 앞세워 보통사람의 상식을 우롱하는 지경에까지 왔다.

과장이 아니다. 우선 헌재. 헌재가 어제(1일)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4일로 발표했다. 작금의 헌재 재판관 8인 체제가 어쩔고, 왜 9인 완전체가 되어야 하며, 혹은 2인 퇴임 후 6인만 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등등. 지금껏 여야는 친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진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때까지 막아 강행하기 위해 서로 위협이네 뉘네, 절차적 정당성이 어떡하네를 다투는 시끄러운 법적 공방을 벌였다. 온갖 복잡한 법 지식과 용어가 난무하며 대중을 헛갈리게 했지만, 결국 이런 거다. 입맛에 맞는 재판관 넣고 빼기로 재판 결과를 내 편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폐쓰기,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아예 재판 결과를 바꿔버리겠다는 힘겨루기다. 양쪽 다 헛심을 쓴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위력은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정확히 갈린 결과를 통해 이미 입증됐다.

법 모르는 대중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런 궁극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 판사에 따라 죄의 유무가 갈린다면 대체 법은 무슨 소용인가. 유감스럽지만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2018년 범조 종사자(판검사, 변호사 등)를 대상으로 한 전관

예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이 전관예우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까지 바꾼다고 답했다. 이런 불편한 현실을 물었다면 또 모를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통해 온 국민이 이를 목격한 마당에 법의 신위는 이미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달 서울고법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역시 마찬가지다. 1심에선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나왔다. 그런데 재판부가 판단을 180도 바꿔야 할 정도의 새로운 사실 하나 없이 그저 판사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2심에선 무죄가 나왔다. 대중이 기대하는 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졌다는 측면에서도 문제지만, 재판부의 무죄 판결 사유가 더기가 막하다.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국토부 협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련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발언한 건 거짓이라는 검찰 기소에 대해 재판부는 “상당한 압박

헌재 탄핵심판 정파성으로 갈등 이재명 재판도 정치적 이해 시비 법이 상식 우롱하면 조롱당할 뿐

감을 과장한 표현일 뿐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무죄의 근거로 어떤 그럴듯한 법 조항이나 판례가 쓰였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법 모르는 대중 눈높이에선 궤변으로 보일 뿐이다. 헌재 의회 권력을 움켜쥐고 또 미래 권력까지 거의 손에 쥔 유력 정치인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 피고인이었다면 과연 재판부가 이렇게까지 속내를 헤아려 판결했는지 의문이다. 이처럼 법이 상식에 한참 못 미친다면 대체 법의 쓸모는 무엇인가.

미국 법학자 프레드 로틀 예일대 교수는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1939)에서 법률가들을 일컬어 “특수한 법 지식으로 무장하고 난해한 말장난을 첨가해 대중에 군림하는 고급 사기꾼”이라며 “재판은 법적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법이 상식을 우롱하면 로틀이 그랬듯 국민도 법을 조롱한다. 4일 탄핵심판이 상식으로 충분한 세상이라는 걸 보여줄지 기대한다.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근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문의: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저작권: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유료: 1월정 20,000원 1부 1,000원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p>1. 웃손 하이, 프로스틴미들 2025 새성금 \$1,450,000</p> <p>방 5, 화 5.5, 5,000sqft, 차고 2, 모던 디자인, 123/236/GMU</p>	<p>6. Clifton 싱글 \$950,000</p> <p>방 4, 화 3.5, 차고 2, 3,300sqft, 센터빌 하이 세입자용 전부 업그레이드, 새 지붕, 새 HVAC</p>	<p>11. 페어팩스 타운 \$800,000</p> <p>2010년, 방 3, 화 3.5, 차고 2, 2,300sqft, fairOaks mall/50/66/286</p>
<p>2. 찬들리 하이 싱글 \$1,050,000</p> <p>방 4, 화 3.5, 차고 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86/50/lees corner rd</p>	<p>7. 맥클린 하이, 러서리 싱글 \$2,799,000</p> <p>방 6, 화 6.5, 6,000sqft,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모던 세입, 고품격 디자인, 맥클린하이, 롱펠름미들, 495/66/267/123/Old Dominion Dr</p>	<p>12. 페어팩스 콘도 \$580,000</p> <p>방 2, 화 2, 차고 2, 엘리베이터, 계단 없는 단층 콘도, 1,078sqft, 콘도비 \$534.77/m, 66/286/Fair Oks mall, Fair lakes mall</p>
<p>3. 찬들리 하이 싱글 \$1,150,000</p> <p>Rocky run middle, Polpa Tree Elementary, 최고 학교, 방 6, 화 3.5, 4,000sqft, 상당근처, 66/28/50/29</p>	<p>8. 맥클린 하이 싱글 \$2,599,000</p> <p>방 7, 화 7.5, 6,100sqft,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모던 세입, 고품격 디자인, 맥클린하이, 롱펠름미들, 495/66/267/123/Old Dominion Dr</p>	<p>13. 센터빌 중심콘도 \$460,000</p> <p>방 2, 화 2, 차고 1, 도어관입, 1230sqft, 콘도비 \$348.77/m, Giant, 66/28/29</p>
<p>4. 센터빌 싱글 \$1,150,000</p> <p>새집같은 모델하우스, 모던 디자인, 전부 리모델링, 방 6, 화 4.5, 차고 2, 솔라 패널, 6,228sqft</p>	<p>9. 페어팩스 중심 타운 \$825,000</p> <p>방 3, 화 3.5, 3,000sqft, 236/66/29/50, GMU, 지하워키프로, 락, 콘스</p>	<p>14. 찬들리 세타운 렌트 \$3,600</p> <p>방 3, 화 3.5, 차고 2, 2,300sqft, R166/28,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워싱턴, 코스모,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p>
<p>5. 센터빌 싱글, VIRGINIA RUN \$925,000</p> <p>방 4, 화 4, (메인/ 풀타임), 차고 2, 3,2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9/28/66</p>	<p>10. 찬들리 하이 타운 \$599,999</p> <p>방 3, 화 3.5, 1,980sqft, 맥, 워크아웃 지하 (맥, 풀타임), 50/286</p>	<p>15. 헌튼 새콘도 \$3,000</p> <p>방 2, 화 2.5, 차고 1, 1,600sqft, R128/267/이노베이션 베트르역 걸어서,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Giant Food, Restaurants</p>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특점 Annandale 콘도

완전 리모델링된
환하고 밝은 예쁜 콘도, 나무마루,
새롭게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H Mart 가까움

\$210,000



Contract

특점 Stafford 단독주택

2011년에 지은 집, 2022년에 업그레이드,
방 5, 화장실 5, 차고 2, 뒷쪽에 Full Bath 3개,
최고급 자재로 업그레이드 한 밝고 넓은 집,
새 단지 새 동네, Walkout Basement, Fully Fenced Backyard

\$719,900



Coming Soon

특점 Lorton 타운홈 렌트

엔드 유닛, 2 Car Garage,
최고로 업데이트된 럭셔리 홈, 전체 나무 마루,
탁트인 부엌, 넓은 DECK, 방4, 화장3 1/2

\$3,600



Rented

특점 Annandale 타운홈

엔드 유닛, 2 Car Garage, 업데이트된 예쁜 타운홈,
리모델링한 부엌, 집 전체 나무마루, 밝고 환한 집,
Large Deck, 교통 편리

\$710,000



Sold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LA 광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건강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Wednesday, April 2 2025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평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담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수면 임플란트’ 치과 공포증 해결하고 건강 챙겨

임플란트

예로부터 건강한 치아는 오복(五福) 중 하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구강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무엇보다 기대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구강 건강은 행복한 노년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도 치과를 떠올리면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치과에 들어서 자마자 들리는 날카로운 기계음,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신음소리,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정적이 흐르는 무거운 분위기 등은 불안함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임플란트나 사랑니 발치, 신경치료 등 통증이 수반되는 치료로 병원을 찾게 되거나 과거 한번이라도 치과 치료에 대한 아픔을 경험한 이들이라면 이러한 감정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덴탈 포비아 이제 그만

이처럼 치과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심리상태를 덴탈 포비아(dental phobia)로 표현하기도 한다. 덴탈 포비아란 치아를 뜻하는 덴탈(dental)과 강박적인 공포감을 뜻하는 포비아(phobia)를 결합한 것으로, 치과에 대한 강박적인 두려움과 공포감을 의미한다.

정기검진을 제외하고 치과를 찾는 대다수의 환자가 어느 정도 구강에 질환을 동반한 채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덴탈 포비아 등을 이유로 치과를 꺼린 나머지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관계로, 치과에서는 환자들이 치과에 대한 공포감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실제 주요 치과에서는 치료에 앞서 치과 불안/공포 측정 설문조사인



DAS(Dental anxiety scale) 통해 환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한 후, 웃음 가스나 수면치료 등을 병행해 치료 및 수술에 임하기도 한다.

수면 임플란트도 고려

치과치료 가운데 진행과정이 까다롭고 병원 방문 횟수가 높은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의식하진정요법이라고도 불리는 수면 임플란트를 고려해볼 수 있다. 수면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치료 시 수면 상태에 가까운 진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마치 잠을 자는 것과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면 내시경 시 사용되는 약물 등을 사용해 진행되며, 전신마취와 달리 환자의 자발적 호흡과 함께 외부에 반응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에서 이루어져 치료

후 바로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또한 덴탈 포비아 환자는 물론 고령의 노년층이나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으로 치료에 제한이 따르는 이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수면 임플란트를 진행한 환자는 진정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기 관계로,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수술 중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고,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통증도 적다. 또한 수술 과정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간혹 수술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은 복잡한 과정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수면 임플란트 후 충분한 휴식 필수
수면 임플란트는 ▶현재 상태 체크 ▶가수면 유도 ▶임플란트 수술 ▶휴식 후

귀가 등 크게 4가지 과정을 거친다. 가장 먼저 의료진은 수술 전 환자와의 충분한 상담과 검사를 통해 고혈압이나 당뇨 등 병력과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 환자의 현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한다.

이어 전문 면허를 소지한 의료진이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의식하진정상태로 유도한다. 환자의 가수면 상태와 생리적 상태를 체크한 후 수술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판단되면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환자감시기)해가며 본격적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한다.

의식이 있는 가수면 상태였다고 해도 완벽히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은 필수다. 간혹 휴식 후 졸린 기운이 남아있을 수 있어 가급적 운전은 피하고, 보호자를 동반하여 귀가하는 것이 권고된다.

전문 의과 상담 후 진행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수면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수술 등 치과 치료에 해당 공포가 심한 환자나 한 번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 당뇨 및 고혈압 등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 오랜 수술 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 뼈 이식이나 재수술 등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 구역질 등의 사유로 치과 치료가 힘든 환자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덴탈 포비아를 줄이고 다양한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수면 임플란트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수술 전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를 점검 및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보유 여부를 미리 파악한 후, 전문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수면 임플란트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한국 연세치과의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CAO The Centers for Advanced Orthopaedics
The Orthopaedic Foot & Ankle Center

김창용 발 전문병원

발이 아프시면, 이제 김창용 발 & 발목 전문의에게 맡겨 주십시오!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 이 발이 불편한 것을 그냥 참거나 넘기지 마세요.
발이 불편하시면 일단 거동이 어렵게 되고, 생활이 불편해져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발이 아프거나 불편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증상이 있습니다. 환자 개인에게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뇨병 발 관리 발 및 발목 골절 망치 발가락 당뇨 신발 상처 치료 건막류 기능성 발 보조기 족저근막염 사마귀 및 궤양 관절염
-------	-----------------------------------------------------------------------------------------------------------------------------------------------------------------------------------------------------------

족부외과 전문의
Dr. Chang Yong Kim D.P.M.
Dr. 김창용 원장
- Kent State University, College of Podiatric Medicine
- Podiatric Surgery Residency at St. John's Episcopal Hospital
- Wound Care Fellowship at St. John's Episcopal Hospital
- The American Board of Podiatric Medicine Certified
- Hyperbaric Medicine Team Training Course Certification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Podiatric Medicine

예약 문의 **703.394.4818** 통역 서비스 제공
www.footankledc.com
2922 Telestar Court, Falls Church, VA 22042 / 1550 Wilson Blvd, Suite 105, Arlington, VA 22209

“밤잠 설치는 요통, 신경병증성 통증...초기 약물치료가 중요”

김근년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교수 신경병증성 통증을 인식해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말초 신경이 손상된 신경학적 질환이다. 여러 원인으로 몸통에서 팔다리로 뻗은 신경가지인 말초 신경이 손상돼 저리면서 찌릿하고 화끈거리는 통증,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감각 이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척추 질환 등으로 만성적 허리 통증이 있다면 신경병증성 통증에 주의해야 한다. 만성 요통 환자의 30% 이상은 신경병증성 통증의 징후를 보인다.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김근년(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교수에게 허리 통증과 신경병증성 통증의 연관성, 위험 신호, 치료법 등에 대해 들었다.

신경병증성 통증을 인식해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말초 신경이 손상된 신경학적 질환이다. 여러 원인으로 몸통에서 팔다리로 뻗은 신경가지인 말초 신경이 손상돼 저리면서 찌릿하고 화끈거리는 통증,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감각 이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척추 질환 등으로 만성적 허리 통증이 있다면 신경병증성 통증에 주의해야 한다. 만성 요통 환자의 30% 이상은 신경병증성 통증의 징후를 보인다.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김근년(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교수에게 허리 통증과 신경병증성 통증의 연관성, 위험 신호, 치료법 등에 대해 들었다.

Q 척추 질환으로 허리가 아픈데 왜 신경이 손상돼 신경병증성 통증이 생기는가.
“디스크가 터지거나 눌리는 척추 질환은 그 주변에 있는 신경까지 누른다. 이렇게 척추 질환으로 신경이 오래 눌리면 이차적으로 말초 신경이 손상돼 변성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신경병증성 통증이 생긴다. 신경병증성 통증은 척추 질환으로 말초 신경이 손상돼서 나타나는 후유증인 셈이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 등 척추 질환으로 만성 요통을 겪는 사람의 30~40%는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악화한 것으로 추정한다.”

Q 척추 질환이든, 신경병증성 통증이든 똑같이 허리·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구분하나.
“통증 양상이 미묘하게 다르다. 비슷하게 저리고 찌릿한 통증이라도 척추 질환으로 허리가 아플 땐 방사통으로 허리부터 엉덩이·허벅지·종아리·발 등으로 통증이 퍼진다. 반면에 신경병증성 통증은 감각 이상으로 갑작스럽게 다리 전체 또는 일부가 아픈 작열감이 특징이다. 전기적 자극처럼 따끔거리고 찌릿하면서 저린 통증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초기엔 참을 만한 강도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진다.
여기에 신경 손상 범위가 더 넓어지면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느끼다가 둔감해지는 감각 이상이나 정상적으로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자극에도 반

응하는 이상통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다리가 차가운 물속에 있는 것처럼 시리거나 내 다리 감지 않게 느껴진다거나 가볍게 스쳤을 뿐인데 세게 때린 것처럼 아프다고 인식한다. 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다. 허리 디스크 등 척추 질환을 앓고 있다면 통증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Q 신경병증성 통증을 의심하는 징후는.
“밤잠을 설치는 야간통이다. 예전에는 낮에만 아팠는데 어느 순간 밤에도 통증이 심해져 한숨도 못 잤다고 호소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신경병증성 통증인 경우가 많다. 허리 디스크 같은 척추 질환 통증은 주로 몸을 움직이는 낮 시간대에 아프다. 밤에 쉬려고 누웠는데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면 신경병증성 통증일 가능성이 높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작열감, 감각 이상 등의 통증을 지속해서 느끼는 시간이 길어진다. 보행 패턴도 바뀐다. 신경병증성 통증은 걸으려고 첫발을 내디디면 통증이 느껴져 걷는 것을 꺼린다. 반면에 걸을수록 통증이 심해지는 척추관협착증은 걷다 쉬기를 반복한다. 이외에도 샤워·목욕을 할 때 느껴지는 물 온도, 부력감 등 양쪽 다리에서 감각이 달라 진료를 받으러 오기도 한다.”

Q 치료는 어떻게 하나.
“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치료제로 통증을 조절해야 한다. 신경 손상으로 유발되는 2차 통증인 신경병성 통증은 소염진통제 등 일반적인 통증 치료제로는 통증 완화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



“가벼운 접촉에도 큰 통증 느끼고 샤워시 두 다리서 느끼는 감각 달라 약물 치료로 통증 전달 차단해야”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도 신경병증성 통증의 약물치료가 신경세포인 뉴런으로 통증 신호가 연쇄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 프레가발린(카발린 등) 성분을 1차 약제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 신경병증성 통증은 참는다고 저절로 낫지 않는다. 신경 손상 범위가 넓어지면 통증 강도가 세지고 약물 반응이 떨어진다. 국소적으로 아프고 감각이 무뎠던 초기 단계에서 약물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신경계가 비정상적으로 과민해지는 것을 차단해 통증을 완화하고 수면장애도 개선한다.”

Q 통증이 심해 고용량으로 투약하면 부작용으로 약물치료를 중단하기도 한다던데.
“세심한 용량 조절이 중요하다. 흔히 통증이 심하면 치료 시작 단계부터 고용량으로 투약해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어지럼증 등 이상 반응으로 약물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약물치료 용량이 높을수록 이상 반응으로 인한 치료 중단율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체내 노폐물을 여과하는 콩팥(신장), 간 기능이 떨어져 이런 경향이 더 크다. 지속적 약물치료를 위해 가급적 저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후 환자 반응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점진적으로 용량을 올리면서 추이를 살핀다. 통증이 조절되면 용량을 유지하다 점진적으로 감량한다.”

디지털 혁신,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 앞당긴다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인공의 생체 신호를 측정해 몸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다. 의료계 최대 관심사인 디지털 혁신의 이상향이다.
의료계도 디지털 전환기를 맞았다. AI나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첨단 기술이 의료 현장 곳곳에 활용되면서다.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은 정밀 의료를 겨냥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치료를 이뤄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고려대의료원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가속 페달을 밟았다. 윤율식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미래형 병원인 스마트병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의료 현장에 발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며 “진료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면서 환자에게 질 높은 전 주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대의료원이 주목한 건 ‘데이터’다. 의료 데이터는 정밀 의료의 시작이자 뿌리이기 때문이다. 양질의 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해 진단 정확도가 높아진다. 고려대의료원은 의료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부터 시작했다. 클라우드 기반의 병원 정보시스템(PHIS)이 그 결과물이다. PHIS는 2017년 국책 정밀의료사업으로

개발된 의료 정보 체계다. 환자의 진료 데이터와 유전체 정보 등을 클라우드 형태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전까지 병원들은 자체 서버에서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는 온프레미스(On-Premise) 방식을 사용했다. 박홍석 고려대의료원 의학지능정보본부장은 “현재 의료원 산하 안암·구로·안산병원은 PHIS로 시스템을 통합해 의료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며 “모든 의료 행위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양식으로 축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PHIS는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에도 손을 뻗는다. 고려대의료원은 지난달부터 ‘실시간 의료자원 정보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해당 플랫폼이 완성되면 PHIS내 정보를 세분화해 실시간으로 병원의 병상 사용과 주요 중증 질환 수용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영경 기자



BRADDOCK FAMILY DENTAL
Children & Adults: Sedation, Cosmetic & Implants

브래덕 패밀리 치과

www.BraddockFamilyDental.com

진료시간 월 ~ 금: 8 ~ 5PM
수요일: CLOSED

최신 3D 장비보유, 최첨단 CT 촬영과 디지털 X-RAY, Intra-oral Scanner로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최선의 치료를 약속드립니다.



원장 조상욱 (Samuel Cho, DDS, FICOI)

- UVA
- MCV School of Dentistry
- AEGD Residency @ MCV
- Fellow of International Congress of Oral Implantologists(ICOI)
- Invisalign Certified Provider
- American Dental Association
- VA and Northern VA Dental Society

진료과목

• 임플란트	• 크라운	• 일반치과
• 신경치료	• 임플란트 틀니	• 미용치과
• 교정	• 충치치료	• 잇몸치료
• 발치	• 전체/부분 틀니	• 응급환자



모든 치과보험(PPO) 받습니다. 메디케어(VA SMILES FOR CHILDREN) 받습니다. 메디케어 보험 받습니다. •Anthem(Liberty) •Aetna •Humana •United

Be Social with Us!

오피스 **571-339-3628**
한국어 상담 **571-339-3682**

(조지메이슨 대학 건너편)



Braddock Rd
123 Ox Rd
Braddock Family Dental
10513 Braddock Rd.
Fairfax, VA 22032

치약에 물 묻힌다 vs 안된다... 논쟁 종결

건강을 위한 습관 리모델링

금주와 금연, 매일 운동하기, 밀가루 음식 끊기... '건강관리' 하면 거창한 목표부터 떠올린다. 하지만 일상에서 무시하고 하는 행동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 온도 차가 큰 음식을 연달아 먹지 않고, 자기 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땀 언더웨어보다 바로 앉는 식이다. 더 늦기 전에 부위별 잘못된 습관을 점검하고 바로잡자.

치약에 물 묻히면 세정력 '뚝'

치아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된다. 치아가 약해지면 소화불량은 물론 영양 불균형, 면역력 저하 등을 겪을 수 있다. 젊었을 때부터 치아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치아 건강을 망치는 대표적인 습관은 온도 차가 큰 음식을 연달아 먹는 행동이다.

뜨거운 국이나 찌개를 먹고 열기를 식히려 바로 찬물을 마시는 게 그런 예다. 이 경우 치아 표면의 법랑질이 수축과 팽창을 거듭해 치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이 시립 등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 좌우로 양치질하는 습관도 마찬가지다. 중앙대병원 치주과 서지영 교수는 "좌우로 문지르기만 할 경우 치아 표면이 마모돼 이가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사소하지만 잘못된 양치 습관은 또 있다. 치약을 사용할 때 물을 묻히는 행동이다. 치약 속 약제 성분은 물에 닿으면 희석돼 세정 효과가 떨어진다. 치약은 칫솔모 길이의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만 째 다음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사용하는 게 좋다.

불 끄고 폰 보다간 녹내장 위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스마트폰이다. 만약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본다면 주변 밝기와 자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자칫하면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녹내장은 당뇨망막병증·황반변성과 함께 3대 실명 질환으로 통한다.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다. 그중에서도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방수(눈 속에 있는 물)가 지나가는 길인 전방각이 좁아지거나 폐쇄되면서 생긴다.

문제는 어두운 환경에서 오프리거나 고개를 숙인 채 근거리의 스마트폰을 보면 동공이 커지고 수정체가 앞으로 쏠려 방수의 원활한 순환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안과병원 녹내장센터 장인 정종진 안과 전문의는 "밤중에 스마트폰을 쓸 때는 주변을 밝게 하고, 오프리키보다는 빠르게 앉거나 천장을 본 채 누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어두운 곳에서 20분 이상 스마트폰을 보는 일도 피하도록 한다"고 조언했다.

최고의 관리법은 '그대로 두기'

청각은 주변 환경을 지각하는 데 중요한 감각이다. 돌발 상황에서는 시각보



다 빠른 반응을 보여 안전에 도움을 준다. 청력을 유지하려면 습관적으로 귀지 제거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귀지는 세균으로부터 외이도(귓바퀴에서 고막까지의 길)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저절로 밀려 나와 배출되기 때문에 귀이개나 면봉으로 파낼 필요가 없다.

역지로 파내면 오히려 외이도나 고막에 상처를 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어폰 사용 습관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어폰을 쓸 땀 한 시간마다 10분 이상 귀에 휴식시간을 주고, 난청과 이

명을 예방하기 위해 볼륨은 최대치의 50~60%로 유지한다. 소음 제거(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갖춘 제품을 쓰는 것도 도움 될 수 있다. 주변 소음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음량을 낮춰 듣게 돼 청력 손상을 줄일 수 있다

뜨거운 물·바람 피하기

두피 건강의 악화는 탈모뿐 아니라 가려움, 비듬, 염증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를 예방하는 핵심은 '저자극'이다. 일단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등 두피에 자극을 주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뜨거운 물은 두피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피지를 과도하게 제거해 건조함을

유발하고 모발을 약화할 수 있다. 대신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도록 한다.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릴 때도 가급적 찬 바람을 이용해 건조한다. 흔히 머리를 자주 감는 습관이 탈모를 촉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오해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권오상 교수는 "머리를 자주 감는 습관은 두피와 모발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 오히려 탈모 예방에 좋다"고 말했다. 모자를 자주 쓰면 탈모가 생긴다는 얘기도 낭설이다. 모자 착용 자체가 아닌, 꼭 끼는 모자를 쓰는 게 모낭염 등을 야기해 두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수 기자

전문의 칼럼 이영직 원장 /이영직 내과

가슴 쓰리고 목 칼칼하면 '위산 역류' 의심

박모씨는 40대 중반 남성으로 식품점을 운영하고 있다. 약 일 년 전부터 점점 목이 쉬는 것을 느꼈고, 3개월 전부터는 더 악화했다. 처음에는 감기에 걸려서 목이 쉬었다고 생각했는데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나빠졌다. 또 가끔 기침하고 흰 가래가 나와서 답답함을 느꼈다. 그러나 음식을 삼키거나 숨을 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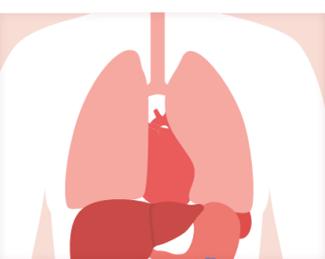
박씨는 과거에 특별한 질병을 앓은 적이 없고 복용하는 약물도 없었다. 생활 습관은 커피를 하루 3~4잔, 담배를 하루 한 갑 피우고 있고, 술은 가끔 마시고 있다.

박씨는 직업 관계상 일주일에 6일 이상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했다. 퇴근 후 저녁 식사를 늦은 시간에

하고 바로 잠을 자는 편이며,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

특이점으로 지난 일 년간 몸무게가 10킬로그램 이상 늘었다. P씨는 만성적으로 목이 쉬면 후두암 때문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듣고 병원을 찾아왔다.

검진 상 혈압은 정상이고 체중은 과체중에 속했다. 인후에 흰 가래가 고여 있는 것을 발견했고 폐 음은 정상이었다. 현재의 병력과 검진을 바탕으로 위산 역류병(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GERD)으로 일단 진단했다. 박씨는 커피, 과체중, 늦은 저녁식사 등이 위산 역류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약물치료를 시작했다.



위의 증례는 흔히 보는 '위산 역류병'의 예다. 현재 미국인의 10%가 위산 역류 증상을 매일 느낀다고 한다. 33%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역류 증상을 느낀다고 한다.

위산 역류가 생기는 가장 흔한 경우는 식도와 위 사이의 괄약근이 약해진 경우다. 선천적으로 괄약근이 약한 경

우도 있지만, 기름진 음식이나 카페인, 알코올 등이 괄약근을 약하게 할 수 있다.

복부 비만도 복강 내 압력을 증가시켜서 역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식사 후에 바로 누워 있을 때도 체위성으로 위산의 역류를 유발할 수 있다. 다른 원인으로 맵고 짠 음식을 먹는다든지 칼슘 등을 과량 섭취할 때 위산이 증가해서 역류가 생길 수 있다.

위산 역류병을 진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병력이다. 특히 식사 후 가슴이 쓰리거나(heartburn)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칼칼하고 흰 가래가 나온다거나, 노래를 부를 때 고음이 나오지 않는 등의 증상들은 모두 위산이 역류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밖에 내용물이 입으로 역류하는 느낌인 신트립(Regurgitation) 증상, 목의 이물감, 천식 증상, 메스꺼움, 때에 따라 치아부식 증상도 나타난다.

병력으로 진단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내시경을 해서 위산으로 인한 식도의 손상을 볼 수 있다. 또 위산 역류병이 의심 가는 경우 위산 억제제를 실험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다.

오랫동안 위산 역류병을 내버려 두면 각종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만성 역류로 인해 식도 하단부 세포가 변화하는 질환인 '바렛 식도(Barrett's esophagus)'다. 최근 미국에서 발병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만성 기침이나 천식이 악화하기도 한다.

이영직 원장 /이영직 내과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좌골 신경통,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순환장애
- 불면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교통사고 후유증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한국 공진단 판매

한방에서 처방되는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의대사 연정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약박사
- 임상 25년 경험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www.chaiorientalmedicine.com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죽을 것 같은 공황 ‘관찰일지’와 함께 조절

윤제연
서울대병원 교육인재개발실 교수



공황증상 속 일상 되찾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나’

발작 상황 써보며 패턴·요인 파악
활동별 불안 강도 점수 매겨보고
공포감 낮은 활동부터 도전해가야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는 고통의 호소가 드물지 않다. 바쁜 업무일정 속에서 여느 때와 같이 야근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넥타이를 풀고 심호흡을 해보아도 별로 소용이 없다. 가슴이 답답해서 질식해 죽을 지도 모르겠다는 고통이 엄습해 어렵게 응급실에 갔지만 명확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하고, 숨차고 가슴답답한 증상도 나아져서 일단 귀가했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증세가 몇 차례 다시 발생하였다. 출퇴근 시 지하철에서도 증상이 나타나 지하철 탑승을 주저하게 되었다.

다시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지속되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는 것도 피하게 되어 생활환경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상 제약으로 조절된다는 건 착각

우리가 불안을 경험할 때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배가 불편해지는 등의 신체증상이 동반되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생각들이 함께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공황발작의 경우에는 좀더 증상의 강도가 강해 심호흡을 하려고 해도 별로 숨막힘이 나아지지 않고 시야가 흐려지거나 좁아지고 명치가 답답하거나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신체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공황장애에서의 공황발작은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 예컨대 소파에 앉아서 TV를 시청하다가도 시작될 수 있다. 강렬한 신체증상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이 상황과 나의 상태를 통제할 수 없을 것 같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것 같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러다가 큰일이

공황 극복법

01

시간이 지나면 찾아든다는 것을 기억

고강신경 활성화가 지속되면 뒤이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신체항진증상이 점차 가라앉는다.

02

일지 작성으로 패턴 파악

공황발작이 발생한 상황(언제 어디서 무엇 일, 동반되었던 신체감각과 감정, 나의 행동반응 등을 써보고 나의 공황 발작 패턴을 파악해 대처방안 마련에 참고한다.

03

회피해온 일상활동, 쉬운 것부터 다시

공황발작 재발생의 두려움으로 회피해온 일상활동 중 가장 부담감이 적은 활동부터 다시 시도해 본다.

[GettyimagesBank]



힌 듯 답답하고 시야가 흐려지고) ③ 내가 가장 두려웠던 것(숨이 막힐 거야, 나는 견딜 수 없을거야 등), ④ 내가 느낀 감정 ⑤ 내가 했던 대처행동(예컨대 혼란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조절하지 못함, 운전을 그만두고 택시를 불렀음 등)을 한줄씩 기록해 본다.

공황일지를 검토하며 자신의 공황 발작이 아무 일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발작 관련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조절을 시도함으로써 회피행동이나 안전행동에 기대고 활동반경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공황증상의 완화와 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공황발작 중 자동적으로 떠올랐던 염려와 걱정이 현실화되었는지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황증상에 대한 대안적 해석·가설(예컨대 ‘이 증상은 지나갈 거야, 불안은 불편하지만 나에게 해롭지는 않아, 이전에도 공황발작을 경험했지만 정신을 잃지는 않았어’)을 만들어내고 다시 공황증상이 나타날 때 대안적 해석·가설을 떠올려 보고 어떠한 감정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한다.

정신력과는 아무 관계없어

세 번째로 일상활동 중 공황발작의 재발생에 대한 걱정으로 피해오던 활동들 중, 유발되는 공포·고통감의 강도가 보다 낮고 자신이 시도해볼 만한 마음이 생기는 정도가 큰 활동부터 한 가지씩, 점진적으로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다. 자신이 경험한 신체항진과 불안·공포감을 100점 만점으로 점수 매겨 보고, 다음에 다시 일상활동을 시행하고 신체항진과 불안·공포경험의 강도를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면서 공황증상의 재발생에 대한 걱정으로 회피해온 일상활동을 여러 사이클에 걸쳐 시행하는 가운데 신체항진과 공포감의 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검토해 본다.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공황증상의 회피가 아닌, 공황증상으로부터 일상생활의 자유와 생활기능을 회복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길 것 같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 결과 걱정과 공포감이 더욱 강화된다. 공황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공황발작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예기불안에 시달리면서 역설적으로 공황증상의 재발생에 더욱 취약해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공황발작의 결과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고 나아가 이전의 공황발작 경험과 관련된 상황·장소를 회피하고 공황발작에 동반되는 신체증상을 회피하기 위한 안전행동(숨이 찰 수 있으므로 운동을 피하거나, 광장 공포가 있는 사람이 음식점에 가면 필요 시 바로 뛰쳐나갈 수 있게 출입문 옆에 자리를 잡는 등)에 기대는 등의 행동변화가 동반된다.

공황발작을 반복하여 경험하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 번째로 다음의 사항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신체항진 증상이나

의 주의를 끌기 시작하고 이것이 또다른 공황발작의 시작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 공포가 커지고 신체항진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교감신경 항진이 지속되면 뒤이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신체항진은 결국 완화된다. 공황발작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자연 종료된다. 불안을 경험하고 있지만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않고 내 일상의 활동을 수행하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고 불안은 지나간다.”

두 번째로 공황 일지를 기록하여 내 공황증상의 패턴과 관련요인을 파악한다. 공황발작에는 대부분 자극요인이 선행한다. 공황발작에 선행하는 자극요인은 신체감각의 미세한 변화와 같은 일견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

공황발작의 발생을 스스로 관찰하고 공황 일지(panic log)에 ① 공황발작이 발생한 날짜·시간·장소·당면상황, 마음속으로 떠올랐던 연상이나 기억 ② 내가 느낀 신체감각(예를 들면 벽속에 간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5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영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감원·예산 삭감 ... 위기의 사회보장국

전화 응답률 24%까지 급락
'이러다 민영화...' 우려까지
수급자 불안에 항의 거세져
대면 신원확인 일부 후퇴

레는 2만878건으로 피해액은 3350만 달러에 이른다.
이 와중에 SSA의 복잡한 연금 지급과 정보기술 시스템을 운영해 온 수십 명의 전문 관리자가 해고되자 자신해서 사표를 낸 이들까지 나왔다.



조직 축소와 예산 삭감으로 사회보장국의 서비스가 축소되면서 수급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달 18일 뉴욕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소셜시큐리티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들.

매년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소셜연금과 장애보험 보조금 등을 7300만 명의 은퇴자와 유족,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연방 기관인 사회보장국(SSA)이 흔들리고 있다.

SSA 웹사이트는 3월 들어 10일 동안에만 4번이나 서버가 다운돼 수백만 명의 은퇴자와 장애인들이 온라인 계정에 로그인하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직원 감축으로 소셜 오피스 매니저가 직접 전화를 받는 상황이다.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SSA의 수혜자 응대 모니터링 시스템은 멈췄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한 비용 절감 조치로 해당 부서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취임 두 달이 가까운 러랜드 두텍 국장 대행 체제에서는 직원 5만7000명 가운데 12% 이상 해고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두텍 대행은 SSA의 전화 서비스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실질적인 운영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사가 정부효율부 직원의 SSA 수혜자 개인정보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자 두텍 대행은 소셜연금 지급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두텍 대행은 나중에 이 발언을 취소하긴 했으나 논란은 계속됐다. 그는 정부효율부에 SSA의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SSA의 개인 정보는 민감하다. SSA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수급자의 직접 입금 정보를 조작해 소셜연금을 가로챘는 사

▶'민영화 의도 없다'
프랭크 비시그나노 SSA 차기 국장 지명자의 정책도 지금까지의 정부 기조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 않다. 지난 25일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비시그나노 지명자는 사회보장제도를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지만 취임하면 SSA 업무를 전면 감사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자 고령층 비율이 가장 높은 매인주의 앵거스 킹 상원의원은 "70~80대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런 기관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 행위이며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방의원실에는 연금 수급자 등 유권자들의 항의와 문의의 전화가 쏟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퇴자협회(AARP)도 2월 초부터 평소의 2배인 매주 2000건 이상의 문의가 밀려들고 있다고 발표했다. 평생 일하며 납부한 소셜연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진 탓이다.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급증하는데 SSA는 노후화한 시스템과 10년간 거의 증액되지 않은 1500억 달러의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 프로그램 청구를 검토하는 부서는 팬데믹 이후 직원들의 대규모 퇴직 사태가 벌어지면서 일손 부족에 시달렸다. 초기 청구 검토에만 평균 233일이 걸릴 정도였다.

최근 5개월 동안은 국장이 네 차례나 교체됐다. 그나마도 상원 인준을 받

은 국장은 한 명뿐이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첫 두 달 동안 시행된 급격한 예산 삭감과 혼란으로 SSA는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민영화하려는 것이라는 우려까지 흘러나온다.

▶소셜카드 갱신도 직접 가자
두텍 대행은 지난 2월 중순 SSA를 맡게 되자 비용 절감 조치를 시행했다. 연구 계약 취소와 조기 퇴직 유도, 명예퇴직 시행, 프로그램과 지역 사무소 통합에 나섰다. 소셜사무실 폐쇄도 진행돼 지역 사무소 10개 곳을 4곳으로 축소했다. 지난 25일 언론에는 소셜오피스 47곳이 폐쇄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두텍은 "나는 이 기관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서 비스를 개선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뒤에도 소셜연금을 받는 이들이 수백만 명이라는 주장이 나오면

서 사기 방지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를 막기 위해 전화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금지했다. 컴퓨터가 있는 이들은 온라인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컴퓨터가 없으면 소셜사무소를 방문하도록 했다. 이를 놓고 항의가 이어지자 26일에는 직접 방문 의무화는 일부 예외를 두어 정책의 혼선을 빚었다. 또 합법적으로 노동 허가를 받은 이민자와 신규 귀화 시민도 우편이 아닌 직접 방문을 해 소셜카드 신청과 갱신을 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전화 응답률 24%까지
불안해진 소셜연금 수급자들의 전화가 늘면서 대기 시간은 더 길어졌다. 최근에는 120분에서 180분까지 기다려야 통화가 가능하고 45시간을 기다리는 사례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SSA의 전화 시스템은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다. 버라이즌과 체결한 현대화 계약은 여러 차례 지연되는가 하면 시스템 충돌도 일었다. 마틴 오말리

전 청장이 아마존 웹 서비스(AWS)로 바꿨지만 시스템 전환을 완료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전국에 있는 24개 콜센터의 이직률은 10%를 넘고 조기 퇴직과 명예퇴직까지 겹치며 상황은 더 악화했다.

두텍 대행도 "전화 응답률 24%는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 정도였다. 두텍 대행은 콜센터 업무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최근 SSA 직원을 사칭하는 이들이 소셜연금 수급자들에게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

폐쇄 계획과 예산 삭감으로 어수선한 소셜오피스와 사무소 분위기는 언론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일부 오피스에서는 종이와 펜, 전화 헤드셋조차 부족한 상태로 알려졌다. 비품 구매를 담당하는 직원도 줄어든 데다 사무용품 구입은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안유희 객원기자

부결된 '사회보장 확장 법안' 소셜 고갈 대안 역할

시니어 2400불 지급 소문 근거
기금 해결책 제시로 주목 받아

소셜연금 수령자들, 그 중 특히 고령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소셜연금 상승율을 추월하며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지난해 피터 드파지오 연방 하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연방 하원의원은 '사회보장 확장 법안(Social Security Expansion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 가장 주목받은 항목은 수혜자 1인당 연간 소셜연금을 2400달러 인상하는 것이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부결됐지만 여전히 연방정부가 시니어들에게 2400달러를 지급한다는 소문의 진원지로 남아 있다.

법안 부결에도 2400달러 소문이 도

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올해 초 초당적 법안인 '소셜 시큐리티 공정법(SSFF)'이 발효된 영향이다. 이 법으로 펜션을 받는 공무원과 교사가 소셜연금 전액을 받지 못했던 규정이 폐지되면서 소셜연금 수령액이 월평균 360달러 늘어나게 됐고 전반적으로 소셜연금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또 다른 이유는 연방의회에서 부결된 법안이 재발의되거나 다른 법안에 포함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 확장 법안'에는 소셜연금 월 200달러 인상 외에도 ▶소셜연금 인상의 근거가 되는 물가를 산정할 때 의료비 등 시니어의 지출 패턴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저소득층 수혜자의 특별최저 혜택을 연방 빈곤선의 약 125% 수준인 월 14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장애 인이나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연장하는 항목이 들어있었다. 법안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다른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 법안은 또 지난해 사회보장국이 발표한 "현재 상태라면 13년 안에 소셜혜택 전액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안에는 재원 마련 방안도 들어 있다. 방안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분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상위 7% 고소득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사회보장제 확대로 사회보장 기금을 강화해 2096년까지 지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독어/중국어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레이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버러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 / 챔플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라벨클리닉에서 30분, 챔플리클리닉에서 10분 근무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진짜’ 가 빛이 중한가... ‘가짜’ 에 당당한 트럼프

집무실 미술품의 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백악관 집무실(Oval Office)이 공개된 올 초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눈길은 그의 책상 뒤에 머물렀다. 가족사진들 사이에 황금색 월드컵 트로피가 놓여 있었다. 미국이 한 번도 월드컵에서 우승한 적이 없는데, 왜 대통령 집무실에 트로피가 있을까. 영국 인디펜던트의 질문에 국제 축구연맹(FIFA) 대변인은 “트럼프가 가진 건 진품이 아니”라고 답했다.

오벌 오피스는 미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가 시작되는 곳이다. 75.4㎡(약 23평)의 타원형 사무실에서 세계를 흔드는 중요한 결정과 만남이 이어진다. 새 대통령 취임 때마다 인테리어에 조금씩 변화를 주는데, 대통령의 예술적 취향뿐 아니라 국정 철학을 엿보는 가능자로 주목받는다. ‘트럼프 쇼룸’이라 할 수 있는 2기 오벌 오피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황금’과 ‘가짜’다. 벽난로에 금장식을 두르고 문 앞의 로코코 풍 거울, TV 리모컨까지 금박을 물렸다. “대통령이라기보다 왕 같다. 아주 기이하다”(전직 백악관 관계자의 CNN 인터뷰)는 촌평도 나왔을 정도다.

번쩍이는 집무실은 ‘하늘의 베르사유 공간’이라 불리는 뉴욕의 트럼프 타워 26층 펜트하우스와도 닮았다. 여기엔 고대 그리스 로마 조각의 모조품이 빼곡하고, 르누아르의 ‘두 자매’ 모작도 있는 걸로 알려졌다.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이라며 가짜 뉴스를 좋아하듯, ‘부와 성공의 과시’라는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뒤에 FIFA 월드컵 트로피 모조품을 두고, 책상 옆에는 로널드 레이건(아래)을 비롯한 전임자들의 초상화를 걸었다.

트럼프 타워 빼곡 채운 모작처럼 집무실 책상에 가짜 월드컵 트로피 ‘황금’ 도배에... ‘왕 같다’ 촌평도 영도확장 상징 ‘포크 초상화’ 걸어



오바마는 2011년 노년록월의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문제’를 걸고 주인공인 브리짓(가운데)을 초대했다. [사진 백악관 아카이브]

목적에만 충실하면 진품·원본 여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르누아르 만이 아니다. 트럼프의 인상과 사랑은 지극하다. 17기(2017~21) 때 구겐하임 미술관에 반 고흐 풍경을 빌려달라고도 요청했다. 구겐하임 측은 이를 거절하며 “대신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18K 황금 변기 ‘아메리카’를 설치해 주겠다”고 했다. 금장식이나 좋아하는 속물이라고 짐짓 비꼰 거다.

전임 바이든의 6점 때보다 3배 가까운 20점의 초상화를 빼곡하게 건 벽면도 눈에 띈다. ‘미국의 황금기’를 이끈 전임자들의 모습으로 집무실 벽을 가득 채워 이들의 계승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의도다. 금박으로 번쩍이는

벽난로 위에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초상화를 걸었다. 오벌 오피스에 워싱턴 초상화가 걸리는 것은 이상할 게 없다. 다만 이번 것은 크고, 금박 액자로 장식됐으며, 칼을 찬 모습이다. 힘과 권위의 강조다.

가장 독특한 인물은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재임 1845~49)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는 2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전화해 국회의사당에 걸린 포크 초상화와 백악관의 토머스 제퍼슨 초상화를 맞바꾸자고 제안했다. 포크는 임기 4년 동안 미국 영토를 거의 두 배로 늘렸다. 포크처럼, 그는 영토 확장 욕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라거나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인수해야 한다”는 식이다.

본래 오벌 오피스의 미술품은 ‘통합의 상징’이었다. 전임 바이든은 트럼프가 첫 임기 때 걸었던 8대 앤드루 잭슨 대통령의 초상화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과학자 겸 발명가인 벤저민 프랭클린 초상화를 걸었다. 잭슨 대통령은 미원주민 대학살에 앞장선 장군 출신이다. 바이든은 또 라틴계 인권 운동가인 세자르 차베스의 흉상을 책상 위에 둬으로써 포용과 다양성을 강조했다.

오바마(재임 2009~2017)는 오벌 오피스에 대통령 초상화는 워싱턴과 링컨 두 점만 걸 정도로 심플한 공간을 유지했다. 대신 휘트니 미술관에서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두 점을 빌려오는 등 미술품을 늘렸다. ‘미술 정치’에도 적극적이었다. 임기 첫해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청동 흉상을 들였다. 2011년에는 오벌 오피스 앞에 노먼 록웰이 그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문제’를 걸었다. 1960년 백인만 다닐 수 있던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녀 루비 브리짓스를 그렸다. 오바마는 브리짓스를 백악관에 초대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회화만 500점 넘는 자체 미술품 컬렉션을 갖고 있다. 스미스소니언 등 국립미술관이나 타 기관의 컬렉션을 빌려 오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 1명이 대통령실에 순환 근무를 한다. 주요 장소에 미술품을 대어해 준다.

권영기자

거인 데려와 흥행 진격... “이정도 인기 예상 못했죠”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진격의 거인 완결편 더 라스트 어택’(이하 ‘진격의 거인 완결편’)이 재즈의 흥행 진격을 하고 있다. 2023년 종영한 TV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 더 파이널 시즌’을 144분 분량으로 편집하고 일부 새로운 장면을 추가한 이 작품은 지난달 13일 메가박스에서 단독 개봉한 후 1일까지 55만 관객을 모았다. 메가박스 단독 개봉작 중 최고 흥행 성적으로, 할리우드 대작 ‘미키 17’의 절반도 안 되는 스크린 수로 올린 성과다. 극장 불황 타개책으로 멀티플렉스들이 단독 개봉작을 늘려

김주홍 메가박스 콘텐츠기획팀장 ‘진격의 거인 완결편’ 55만명 모아 룩백·리브레터 이어 흥행 3연타 “일본 외 할리우드 대작도 준비중”



김주홍 팀장이 흥행시킨 룩백(위) [사진 메가박스중영]

가는 상황에서 ‘진격의 거인 완결편’ 흥행은 강력한 팬덤을 활용한, 고무적인 성과라 평가다.

특히 메가박스는 지난해 9월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룩백’(30만)과 올초 개봉한 일본 로맨스 ‘리브레터’(10만)에 이어 ‘진격의 거인 완결편’까지 단독 개봉 흥행 3연타를 치고 있다. 이를 이끌고 있는 김주홍(44) 메가박스 콘텐츠기획팀장을 지난달 28일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만났다. 그는 “진격의 거인 완결편이 이렇게까지 흥행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며

입을 뻗었다. “진격의 거인 완결편”은 어떻게 단독 개봉하게 됐다.

“수입배급사 애니플러스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다. 팬덤을 결집해야 흥행할 수 있는 영화인 만큼, 굿즈를 잘 만들고 팬덤 마케팅에 강한 메가박스의 장점도 작용한 것 같다.”

“팬들이 마지막 인사를 극장에서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다. 눈물 흘리는 관객들이 많다. N차 관람객을 위한 할인은 물론 다양한 굿즈도 준비하고 있다.”

“리브레터” 재개봉으로 10만 관객을 모았다.

“지난해 부산 국제영화제 때 수입사(위터홀컴퍼니) 관계자와 식사하다가 얘기가 나와 재개봉하기로 기뻐했다. 준비하는 와중에 주연 배우 나카야마 미호의 부고가 들려왔다. 마케팅을 추모 컨셉으로 수정해 1월 1일 개봉했다. 오역 또는 의역으로 지적됐던 자막을 바로잡고, 세로 자막으로 옛 감성을 살렸다. 이런 새로운 시도 덕분에 성과를 낸 것 같다.”

정현목 문화선임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척상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과 전문의)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샷 구질·퍼터 바꾼 게 '신의 한수'

17개월 만에 우승 김효주 드로로 비거리 늘려 '제로 토크'처음 사용

김효주가 1년 5개월 만에 LPGA(미국 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우승한 원동력은 구질 변화와 퍼터 교체였다.

김효주는 지난 1월 보름 동안 미국 하와이주에서 겨울 훈련을 했다. 늘 하던 겨울 훈련이었고 체력 훈련과 쇼트 게임, 그리고 퍼팅 연습 등 필수적인 훈련 내용은 다 포함됐다.

다만 전과 달랐던 것은 드로 구질 연마였다. 끈고 정확한 샷을 구사해온 김효주는 그동안 따로 구질을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비거리는 조금 뒤쳐졌지만, 워낙 정확한 샷을 때리는 김효주는 스윙 머신이나 다름없다는 찬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7월이면 만 30세가 되는 김효주는 줄어드는 비거리를 보충하지 않으면 LPGA 투어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겨울 훈련 동안 김효주는 왼쪽으로 휘어지는 드로 구질을 집중적으로 익혔다. 그 결과 김효주의 드라이버 샷은

왼쪽으로 살짝 휘어지면서 전보다 더 낮게 날아가 페어웨이에 떨어진 다음에도 전보다 더 멀리 굴러가는 구질로 바뀌었다. 아이언 샷도 드라이버 샷만큼은 아니지만 드로 구질로 바꿨다.

이런 구질 변화로 김효주는 이번 대회에서 독특히 재미를 봤다. 우선 늘어난 비거리 덕분에 더 짧은 클럽으로 그린을 공략할 수 있었다.

김효주는 최종 라운드 17번 홀(파5)에서 아이언으로 두 번 만에 그린에 볼을 올렸고, 릴리아 부와 연장전에서도 티샷을 더 멀리 보냈다. 아직 기록상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김효주가 드로 구질로 바꾼 것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또 김효주는 이번 대회에서 지금까지 쓰던 퍼터 대신 새 퍼터를 사용했다. 최근 투어 선수들에게 인기가 높은 제로 토크 퍼터에 관심이 생긴 김효주는 지난 17일 주문한 새 퍼터를 받았다.

퍼팅 연습장에서 써본 김효주는 "다음에 든다"면서 곧바로 이번 대회 때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처음 들고나온 퍼터였지만 김효주는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9개를 쓸어 담는 등 신들린 퍼트 감각을 과시했다.

김효주는 이와 함께 요넥스가 새로 개발한 초경량 카이자라이트 샤프트



LPGA투어에서 17개월만에 우승을 차지한 김효주의 퍼팅 모습.

를 드라이버부터 페어웨이우드, 하이브리드, 아이언에 장착해 사실상 새로운 클럽을 사용했다.

김효주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했는데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가 됐다"고 말했다.

매길로이 상금 1억불 돌파 우즈 이어 PGA투어 2번째

로리 매길로이가 타이거 우즈에 이어 두 번째 '1억 달러'의 사나이 됐다.

매길로이는 30일 끝난 PGA(미국프로골프)투어 텍사스 칠드런스 휴스턴 오픈에서 공동 5위에 올랐다.

공동 5위 상금 33만7843달러를 받은 매길로이는 PGA투어 통산 상금을 1억4만6906달러로 늘렸다.

PGA투어에서 상금으로 1억 달러 이상 번 선수는 1억2099만9166달러의 타이거 우즈에 이어 매길로이가 두 번째다.

매길로이는 262개 대회에 참가해 28번 우승했다. 378경기에서 82승을 거둔 우즈보다 대회당 상금 수령액이 훨씬 많다.

이는 최근 PGA투어 상금이 눈에 띄게 커졌기 때문이다.

한편 PGA투어 통산 상금 3위는 9668만5635달러를 챙긴 필 미켈슨이며 4위는 7555만7026달러의 더스틴 존슨이다.

둘은 LIV 골프에서 뛰고 있어 PGA투어 상금을 더 늘릴 수 없다.

7513만4784달러를 벌며 통산 상금 5위를 달리는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가 세 번째 1억 달러 돌파가 가능한 선수로 꼽힌다.

캐벌리어스, 선더 이어 2번째 60승 고지

제임스 활약 15년전 이후 처음

NBA(미국프로농구) 동부 콘퍼런스 선두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LA 클리퍼스를 누르고 올 시즌 30개 팀 가운데 두 번째로 60승 고지를 밟았다.

클리블랜드는 30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로켓 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 NBA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클리퍼스를 127-122로 제압했다.

이로써 클리블랜드는 서부 콘퍼런스 선두 오클라호마시티 선더(62승 12패)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로 60승(15패)을 신고했다.

클리블랜드가 마지막으로 정규리그 60승을 달성한 건 2009-2010시즌이다. 당시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되며 주가를 높인 르브론 제임스(현 LA 레이커스)를 앞세

워 61승 21패를 거뒀다.

15년 만에 60승을 돌파하는 영광을 재현한 클리블랜드는 잔여 경기에서 최대 67승까지 올릴 수 있다.

클리블랜드는 케니 앳킨슨 감독 체제에서 도너번 미첼과 대리어스 갈런드가 이끄는 외곽, 에번 모블리와 재럿 앨런가 트윈타워를 꾸린 골 밑이 조화를 이루면서 승률이 대폭 상승했다.

지난 시즌 승률 58.5%(48승 34패)를 기록한 클리블랜드는 한 시즌 만에 승률을 80%대로 끌어올렸다.

이날도 네 선수가 고르게 활약해 승리를 이끌었다. 미첼(24점 7어시스트)과 갈런드(19점 7어시스트)가 43점 14어시스트를 합작한 가운데 앨런(25점 12리바운드)과 모블리(22점 7리바운드)도 합쳐서 47점 19리바운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가드 맥스 스트러스가 슈트를 시도하고 있다.

드를 기록하며 내외곽에서 클리퍼스를

를 압도했다. 벤치에서 출격할 포워드 디안드레 헨터도 3점 2방에 적중하는 등 10점을 보냈다.

서부 8위(42승 32패) 클리퍼스는 동부 선두를 상대로 선전했으나 결장한 에이스 커와이 레너드의 공백을 메우지 못해 아쉬움을 삼켰다.

슈터 노먼 파월이 34점, 포인트가드 제임스 하든이 24점 8어시스트 8리바운드로 분전했으나 승부처였던 3쿼터 해결사가 나오지 않아 고개를 숙였다.

골 밑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모블리가 15점을 몰아쳐 클리블랜드가 3쿼터를 37-24로 압도했다.

외곽에서 맞볼을 놓으려 했던 하든은 3쿼터 3점 5개를 시도했으나 4개를 놓쳤고, 파월도 3쿼터 득점은 3점에 그쳤다.

조코비치 결승에서 패배 ATP 100회 우승 좌절

노바크 조코비치(5위·세르비아)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통산 100번째 우승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조코비치는 30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마이애미오픈(총상금 919만3540달러) 남자 결승에서 야쿠프 멘시크(54위·체코)에게 0-2(6-7(4-7) 6-7(4-7))로 졌다.

지난해부터 ATP 투어에서 우승과 연을 맺지 못한 조코비치의 ATP 투어 통산 우승 횟수는 '99'에서 또 멈췄다.

조코비치는 이 부문에서 지미 코너스(109회·미국), 로저 페더러(103회·스위스·이상 은퇴)에 이은 3위다.

중앙일보
구독 문의
703.281.9660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임상경력 50년 *정설침구혈위대전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VA, MD, DC 면허 소지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가스, 설염, 부인과 허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670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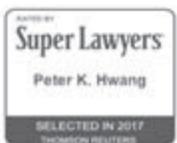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교통 사고

Sung Hwang&Kim | LLP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얼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4월 구인광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LA mart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금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금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첸들리 VA**

- 연매상 100만+25만
- 급하게 처리원함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곽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4월 2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엘리콧시티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싸실 주말 가능한분, 유무경력자
443-386-0515

엘리콧시티 Cafe June에서 풀/파트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무궁화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를 구합니다. 엘리콧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메릴랜드 주로코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서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콧시티
240-426-5678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우대. 숙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메릴랜드 JESSUP- 화장품출세일 (NYX L'OREAL) 세일즈남자 구함
풀타임, 컴퓨터 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 분 연락바랍니다.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식당
목요일과 토요일 또는 하루 일하실 서버구합니다.
식당 Open hour 11:00 AM - 8:00 PM -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240-678-5395

▶▶엘리콧시티 장수 설령장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캐쉬어/경험자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이미용/기타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콧 시티
410-926-32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게이더스버그 MD에서 남/여 머리하시분 구합니다.
301-926-3638 / 301-538-4246(Soo)

싱글/타운방 렌트

메릴랜드 저먼타운 뉴그랜드마트 5분거리 반지하방 (출입구별도), 주방, 욕실,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8-1438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욕실/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여성분
240-413-2738

메릴랜드 저먼타운 뉴그랜드마트 근처 싱글홈 욕실달린 이층 큰방, 반지하방 (출입구별도) 주방, 욕실, 인터넷, 가구완비
301-538-1438

볼티모어 오웬스밀스 좋은동네 타운하우스 2층 방하나 렌트 월료 \$600 여성분 환영
443-844-6296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이층방 세놓음. 가구완비, 교통편리, 인터넷 유료
443-631-7866

우드스탁 반 지하 단독, 화장실, 침대, 출입문 별도, 금연, MD
443-983-1880

▶▶엘리콧시티 타운홈 렌트 메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꾸진 집. 롯데/한양로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2/부엌1/화장실1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사업체 매매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사업 하실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자이안트연 - Sea Food 매매 \$195,000
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메릴랜드 엘리콧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퍼센터 리모델링/ 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Market Research Analyst: Research market conditions in local, regional, or national areas to determine potential sales. Gather information on competitors, prices, sales, and methods of marketing and distribution. Create digital marketing campaigns based on regional preferences and buying habits. 40 hours / week. Master in Business Administration or related field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and Job Location:
Nowy Brands, LLC at 7921 Jones Branch DR., Ste LL2, McLean, VA 22102

케어피플 홈헬스 (애난데일오피스) Billing Coordinator (한국어, 영어 가능하 신분)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보험, 연금 에이전트 라이선스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2024년에 본인 또는 가족 소득이 \$67,000 미만인 경우 세금보고 무료 서비스 안내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초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 모집합니다. 50K/Yr,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우대
▶문의: 571-348-3723

▶▶스마트보험 Contracting/Recruiting Specialist, Life&Annuity Specialist(W2) 신입/경력모집
-Life&Annuity Specialist: Life Agent 유무경력자우대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 Visa 및 영주권 스폰서 가능
지원: smartagent@solomonus.com
703-639-0882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무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공인 회계사사무실(Annandale)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원 채용 경험자 우대. 베네핏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Email: acct2014a@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사무실에서 회계업무직원 구함. 유무경력자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무경력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 챔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챔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자/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토랑/ 타이슨스) 경력자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andhomehealth.com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풀타임 M-F (7am-4pm) 유무경력자
703-489-5105

식당/식품

버지니아 Fredericksburg 일식당에서 일하실 하바지 셰프, 스시 헬퍼 구합니다.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703-258-4356

패어팩스 H MART 근처 새로 오픈하는 일식집 (IZAKAYA)에서 호스트, 서버, 바텐더 구합니다.
703-628-9168 (문자요망)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풀타임 M-F (7am-4pm) 유무경력자
703-489-5105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이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컨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남녀불문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703-774-7443

에난데일 치맥에서 Server 구합니다. 파타임, 캐쉬페이 가능
571-352-4938
Chimc.va@gmail.com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하실 서버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하실 셰프/부주방장을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스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일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넷서술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스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숙소 원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현돈 H-마트 인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543-2320

아난데일 한식당에서 경력있는
웨이트레스 / 쿡하실분 구합니다.
301-938-4075 문자요망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금,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이미용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용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다가
571-215-6767

에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세탁소 픽업스토어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
240-644-4190

▶▶로튼 세탁소 파트/풀타임 카운터 보실
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3-599-5331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분/
파/풀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배킹, 프레스,
빨래/파타임 또는 풀타임/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 메케닉 유경험자
구함
571-332-6110

▶알렉산드리아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703-887-5355 (문자요망)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에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계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703-678-1749

청소/기타구인

손 싸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크루 구합니
다(타주)
540-680-1571/703-955-2827

버크 태권도 사범님 구합니다. 풀타임
\$50K-\$55K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사 (VA)
▶301-537-3800

내니 급구 알렉산드리아/스프링필드에서
8개월 여아 풀타임 내니 구합니다
M-F(9-5pm)
856-304-1907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센터빌)
▶571-591-4455

홈케어(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종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전공
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트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말아서해주시분
703-473-6022.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필그림유치원 교사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엘리엇시티 픽업
풀 or 파트타임 유경험자 환영 9-6pm
410-926-3200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첼트리 새타운 렌트 \$3,600 방3, 화

3.5, 차고 2, 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웨그
먼, 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에난데일에 위치한 저택 렌트합니다.
(알링턴 2마일, DC 7 마일). 3층, 7 베드룸과
7 베스 전체 7500+ sf 의 아름다운 집!
.크레딧 없는 분도 가능! 월 \$7,495.
703-244-3453

▶▶싱글홈 지하렌트 옥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와쉬어,
66번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콘도 렌트

현존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
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
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571-239-6054

스프링필드 1층 콘도 1베드 1 풀베스
월 1,600불
703-489-6926

콘도 렌트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703-336-3283

센터빌 롯데근처 콘도 방2, 욕실 1.5, 깨끗하고
위치 좋음 \$2200 월부터 입주가능
301-466-1646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콘도 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
분 거리. 방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에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 (물값과 개스비 포함되어있음).
H-Mart 가가움, 교통편리.
703-477-3114.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가움,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에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1. 에난데일 콘도 렌트 \$1,800 방1, 화1
세탁기, 전부 리모델링, 마루,
환한 3층 1,000sqft
2. 옥톤 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3.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2, 화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렌트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근처 2분 거리
방1개, 직장인 남자 환영
571-530-7322

에난데일 K마트 근처 싱글하우스 방하나 렌
트, 주차 넉넉
703-965-2343

스프링필드 방+거실, 워카아웃, 가구/인터
넷완비, 즉시 입주 가능, 여자분 환영
703-609-4547

페어팩스 코스코 옆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화장실/거실/가구완비
703-362-5425

엘리엇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이층방 세놓음. 가구완비, 교통편리, 인터넷
유포
443-631-7866

노바, 조지메이슨 대학에서 10분거리, 버크
싱글홈 지하 방 하나 렌트, 가구완비, 금연,
여성분 환영
703-939-2737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 하우스
욕실 딸린 방 하나
571-970-8048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방 하나
세탁/가구/취사/인터넷 완비 여자분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스프링필드 타운홈 2층 작은 방 하나 렌트
교통편리, 여자분 환영
571-581-9515

센터빌 롯데에서 가까운 타운홈 잠만 주무실
여자분, 유포 \$750
703-581-2631

에난데일 예촌앞 타운홈 방렌트, 직장인, 학
생 환영, 취사가 가능
703-622-2033

센터빌 CVS 근처, 타운홈 이층 작은방 하나,
잠만 주무실분, 여성분 환영
571-243-7027

에난데일 H마트 근처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230-2244

센터빌 스톤로드 방 렌트 \$650 유포 포함
703-474-9713

첼트리 롯데 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여자분 \$60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교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지요?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Since 1988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콘크리트 보수 / 유리

콘크리트 보수

내려 앉은 콘크리트 올려 드립니다.
새로 만드는것보다 저렴합니다.
안 고치시면 발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 계단
- 워크웨이
- 페디오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저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반지 팔찌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핸디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꼭지 교체 ◆싱크/디스포저 ◆워터히터/물새는것 ◆하수막힘/변기교체 ◆씽폼프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루핑수리/거러교체 ◆사이드 리페어/창문 ◆데크 수리 ◆드라이얼/페인트 ◆파워워시

24 hours 7 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형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아라냉동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캐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SK 플러밍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 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 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돌반지, 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독자가 행복 해진다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it's just a matter of time; 시간 문제일 뿐이야

Manny and Mitch are talking about the presidential election.

(매니와 미치가 대통령 선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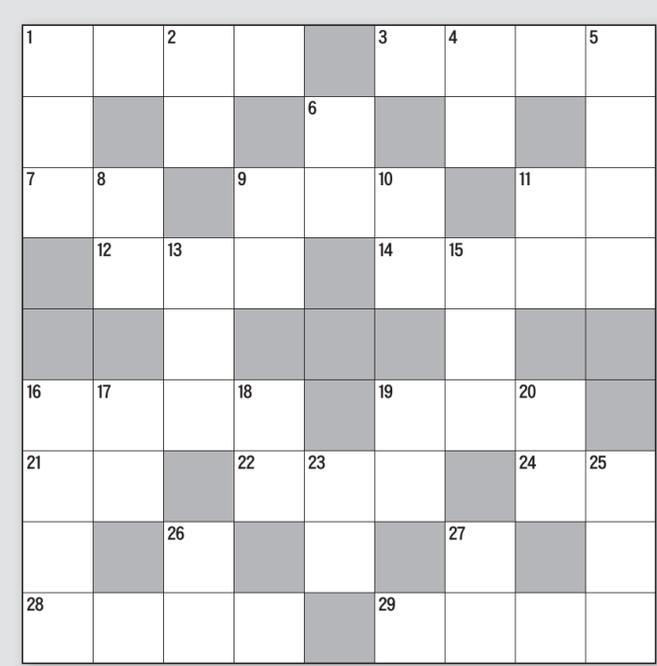
Manny: What's your take on Kamala Harris?
매니: 카말라 해리스를 어떻게 생각해?
Mitch: She's the most interesting candidate.
미치: 가장 관심이 가는 후보지.
Manny: Why do you say that?
매니: 왜 그렇게 말하는데.
Mitch: For one thing he's much different than Trump.
미치: 우선 트럼프와 많이 다르잖아.
Manny: What do you mean by that

매니: 그게 무슨 뜻이야?
Mitch: She's more exciting. I think she's got a lot of fresh ideas.
미치: 더 흥미롭다는 거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Manny: She seems to be very popular. Do you think people are ready to vote for a woman for president?
매니: 해리스 인기가 높은 것 같아. 사람들이 여성 대통령을 뽑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

Mitch: It's just a matter of time.
미치: 시간 문제일 뿐이야.
Manny: She does look like a strong candidate.
매니: 해리스는 강력한 후보 같더라.
Mitch: And it is a very interesting presidential campaign. 미치: 그리고 대선은 흥미진진하고.

어떻게 생각해?
"What's your take on the economy?"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 for one thing...: 다른 무엇보다 우선.
Jim: "Why can't you go to Las Vegas?" (짐: 라스베이거스에 왜 못 간다는 거야?)
Roger: "For one thing I have too much homework." (라저: 우선 숙제가 너무 많아.)
▶ look passed (something): 긍정적으로 보다.

날말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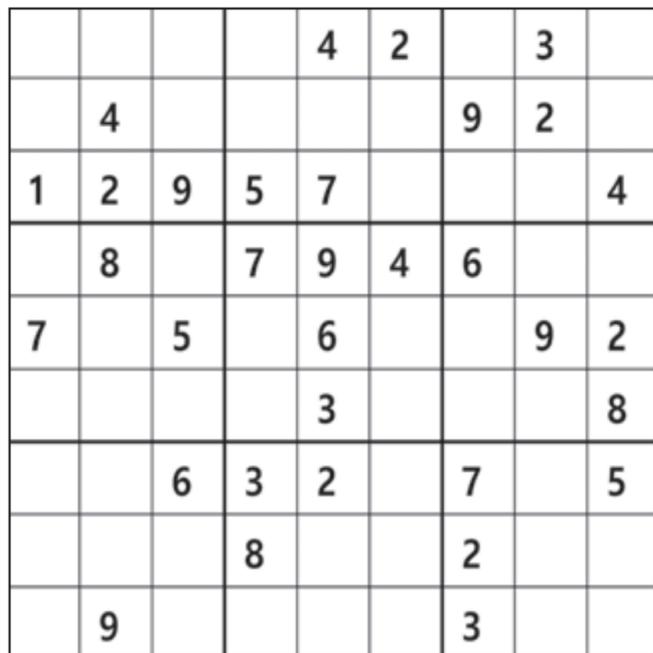
가로열쇠

(1) 술에 취하여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름 (3) 야구에서, 투수가 타격을 당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포볼을 만드는 일. 고□□□ (7) 아버지와 어머니 (9) 검은색. 영양을 돕고 대변을 부드럽게 한다 (11) 거대한 고온의 가스 덩어리로 표면 온도는 섭씨 약 오천팔백 도이고, 코로나의 온도는 약 섭씨 백만 도이다. 해 (12)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버지를 여읜 자식 (14) 우쭐하여 뽐내는 기세가 대단함. 필필 필 만 큼 대단히 성이 남. 역성을 들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아이가 저렇게 ~이라고요 (16) 바닥이 평평한 땅에 세찬 바람과 거센 물결이 일어남. 평온한 자리에서 생각하지 못한 다름이 일어남 (19) 몸길이는 10~16센티미터인 민물고기. 강 상류의 맑은 물에 살며 산란기에 수컷은 뚜렷한 혼인색을 띤다 (21) 사람의 두 팔과 두 다리 (22) 조선 시대, 죄인의 불기를 치던 곤장 (24)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제사에 쓴 음식을 나누어 먹음 (28) 눈 아래에 사람이 없음.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 □□□□ (29)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전□□□.

세로열쇠

(1) 아버지의 누이의 남편 (2) 앉을 때 밑에 깔고 앉죠 (4) 남자의 웃옷과 갓. 남자가 정식으로 갖추어 입는 옷차림. ~을 정제하다 (5) 아홉 번 꼬부라진 양의 창자. 꼬불꼬불하며 험한 산길. □ 절□□ (6) 어떤 학급이나 학년 따위를 책임지고 맡아봄. 1학년 ~을 맡다 (8) 어머니의 젓 (9) 수 입이 지출보다 많아 이익이 생기는 일 (10) 고령 토 따위를 원료로 빚어서 아주 높은 온도로 구운 그릇. 고려 ~ (11) 게으름을 피움 (13) 지나간 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풍속이나 양식 (15) 유인원 중 가장 크다. 코는 납작하며, 흥분하면 뒷발로 서서 이빨을 드러내고 가슴을 두드리며 평평하는 소리를 낸다 (16) 모래밭에 날아와 앉는 기러기. 글씨나 문장이 매끈하게 잘된 것. 아름다운 여인의 땀시. □□□□ (17) 어린아이의 말로, 더러운 것 (18) 깨어지거나 흩어 나서 못 쓰게 된 물건 (19) 몸이나 마음이 지치어 고달픔 (20) 쌀을 끓여 체로 걸러낸 걸쭉한 음식 (23) 매우 좁고 작은 개울 (25) 복이 있고 없고는 그 사람의 운이라는 말 (26)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 어깨 ~ (27) 어린이를 위하여 지은 이야기.

스도쿠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EXP. DATE: / / month year CVS: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2025학년도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5 봄학기 개강 3월 18일

본교 지원시 특전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상담전화 | 213-272-6031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기타 지역 매매 **40년된 텐탈매매**
 살기좋은 세크라멘토지역 품격있는 고객들과 성장할 아주 좋은 기회 (가격문의) 꼭 관심있는분 이메일주세요 Hcho07@sbcglobal.net
테리아키 매매 (\$75만)
 워싱턴주, 월렌트 \$3,715 인기지역에서 10년이상 운영된 안정적인 To Go 전문 판매출: \$1.2M, 년순익 25만 John Lee (469)900-7073
구인
한국화장품샵 구인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실 경험 많으신 분 영여가능자, 이파트 제공 (907)250-8864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센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어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릭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 힘드신분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양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양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뱀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취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중풍,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새봄맞이 2025년산 NEW제품 출시기념
 신정식 박사의 30년 약초연구 비방이 담겨있는 매일 먹는 위장영양제 **속편해**
 한달분 정가 \$120 **2+1할인**
2개사면 1개더 (2+1) 위장의 체질을 개선해 위장을 힘있게 강하게!
신정식박사
속편해한의원 213-393-0999 / 213-334-1100 **속편해 구입처** 711 S. Vermont Ave # 205, LA CA 90005
 별본 갤러리아 (213)388-4100 / LA 갤러리아약국 (323)733-7200 / 한국약국 (323)464-3925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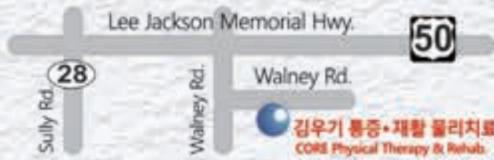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